

전북사학회 주관 2021 전북학 학술대회

“문헌과 금석문으로 본 전라감영”

- 주 관 : 전북사학회
- 지 원 : 전북연구원
- 발표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2021. 09. 10.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전북사학회 주관 2021년 전북학 학술대회
 “문헌과 금석문으로 본 전라감영”

- 주 관 : 전북사학회
- 지 원 : 전북연구원
- 발표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참가자 : 전북대학교 인문대 2호관 402호 세미나실)

<https://zoom.us/j/98323655213?pwd=Q1I2MTI3R09Xc0VvWWdRS3l0Tk1Zdz09>

회의 ID: 983 2365 5213

암호: 1234

- 발표순서

시 간	일정 및 내용	비 고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10	개회사 및 축사 사회 :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4:10~14:35	1주제 : <u>새로 발견된 전주자료 『풍패집록』, 그 내용과 가치</u> - 이동희(예원대)	
14:35~15:00	2주제 : <u>전라감사계록의 구성과 성격</u> - 김순석(전주전통문화연수원)	
15:00~15:25	3주제 : <u>전라감사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 연구</u> - 김진돈 (전라금석문연구회)	
15:25~15:45	중간 휴식	
15:45~17:00	종합토론 좌장 : 하태규(전북대) 송만오(전북대), 홍성덕(전주대), 김승대(문화재청)	

새로 발견된 전주자료 『풍패집록』, 그 내용과 가치

이동희 /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새로 발견된 전주자료 『풍패집록』, 그 내용과 가치

이동희

〈목 차〉

- I. 머리말 - 『豐沛集錄』 발견 경위
 - II. 『풍패집록』의 편찬 경위와 체제
 - III. 『풍패집록』의 내용과 전라감영 柱聯
 - IV. 맺음말 - 『풍패집록』의 가치
-

I. 머리말 - 『풍패집록』 발견 경위

『豐沛集錄』은 19세기 말경 전주사람 蔡敬默이 전주지역의 관아 건물과 시설, 유림 및 종종 유적들을 찾아서 그 記文·詩·상량문 등을 필사해 엮은 책이다. 필사본으로 유일본이며, 전주 읍지 『완산지』에 실려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풍패집록』을 발견한 것은 2020년으로 마침 전라감영 선화당 주련문을 찾고 있을 때이다. 전라감영 복원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선화당에 주련을 달아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옛 선화당 사진에 주련이 있고, 또 주련을 걸어야 선화당 건물의 품격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산지』를 비롯하여 기존에 파악된 어느 자료에도 선화당 주련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이 발견되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완산지』 등이 기존자료에 수록된 것을 필사해 놓은 것으로 생각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많은 필사본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헌에 선화당 주련문이 실려 있다는 것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선화당 주련문이 실려 있었고, 그 뒤에는 작칭의 주련문도 필사되어 있었다.

전주 역사문화의 놀랄만한 자료가 찾아진 것이다. 19세기말 발로 뛰어 당시 있었던 것들을 필사한 것으로, 지금은 사라진 전주 역사문화의 많은 것들이 이 문헌에 수록되어 있었다. 이에 2020년 그해에 이 책의 영구 보존을 위해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매입하여, 연말에 원문을 영인하여 출간하였다.¹⁾

이 글은 『풍패집록』의 편찬과 내용, 그 가치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1) 전주역사박물관편, 『풍패집록』(영인), 2020.

먼저 이 문헌의 편찬자와 편찬경위를 살폈고,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완산지』와의 비교를 통해 『풍패집록』의 가치를 규명하였다.

II. 『풍패집록』의 편찬

이 책의 편찬자는 蔡敬默이다. 채경묵의 본관은 平江이고, 호는 西湖이며 全州 사람이다. 이 책의 서문 뒤에 “存心堂主人 西湖居士 平江人 蔡敬默 義哉氏識”라고 하였다. 그의 호가 서호임은 이 책에 실린 「永慕齋序」에서 이 글을 지은 前 吏曹判書 許傳(1797~1886)이 채경묵을 “西湖子”라고 칭하고 있고, 또 이조판서 曹錫輿(1813~?)가 「蔡氏孝烈旌閭記」를 짓고 그 뒤에 자신이 이 기문을 짓게 된 이유를 “서호 채경묵”의 집안과 오랫동안 세교가 있었다고 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전주출신임은 이 책의 서문에 자신을 “蓋豐沛余鄉邑也”라고 한 데에 나타나 있다. 조선왕실의 풍패, 즉 전주가 자신의 향읍이라는 것이다. 풍패는 곧 조선왕실의 본향 전주를 일컫는다. 그는 자신이 풍패 사람이고 자신이 필사해 모은 것들이 풍패의 유적이라고 하고 있다. 동시대의 인물로 生員 蔡敬默이 있는데, 이 책의 편찬자와는 다른 동명이인으로 보인다.²⁾

채경묵의 집안은 조선말 전주의 유력한 가문으로 보인다. 이 책의 「영모재서」 등에 보면 채경묵 집안의 선산은 전주 伊東面 柳堤里에 있었다. 그는 여기에 모신 蔡志永의 5세손으로, 이 책에 실린 영모재 상량문 글씨를 썼다. 영모재 기문 중에는 채지영의 4세손 蔡東勳이 글을 지은 것도 있다.³⁾

채동훈은 고종대 五衛將을 지낸 인물로 그 아버지는 蔡鳳夏이며, 조부가 『완산지』 효자조에 실려 있는 蔡弘念이다.⁴⁾ 채동훈이 오위장에 오르면서 증조부 蔡志永이 贈戶參, 조부 蔡弘念이 贈左承旨, 부 蔡鳳夏가 贈僕正에 추증되었다. 이 추증 내용이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다.⁵⁾

그의 집안이 전주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은 이 집안의 기문을 前 이조판서 허전, 현 이조판서 조석여가 지어주었다는 것에서도 그 家格을 읽어 볼 수 있다. 조석여는 또 선대로부터 채경묵 집안과 세교가 있었다.⁶⁾ 채경묵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조선말 전주지역의 유력 집안이었음은 확인된다고 하겠다.

채경묵은 글씨를 잘 썼다. 이조판서 조석여가 「채씨효열정려기」를 찬하고, 그 기문 뒤에 작은 글씨로 써 놓기를, ‘서호 채경묵 집안과는 선대로부터 세교가 있었고, 채경묵이 글씨를 잘 썼으며, 자신이 奉使로 중국에 갈 때 그의 글씨를 가지고 갔는데 명사들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였다. 그가 전주지역의 유적들을 찾아 기문류를 필사해 놓은 것은 그가 글씨를 잘 썼던

2) 조선말 1876년(고종 13)에 생원시에 합격한 채경묵은 서울사람으로 이 책의 편찬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거주지도 다르지만, 그가 만약 생원시 합격자라면 자신을 소개할 때 생원 채경묵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채경묵 자신이 스스로를 칭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채경묵을 칭할 때도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지 않았다.

3) 『풍패집록』, 「柳堤里蔡氏墓閣上樑文」(채경묵 書) ; 「永慕齋記」(채동훈 職) ; 「永慕齋序」

4) 『풍패집록』, 「蔡氏烈行旌閭撰」 ; 『완산지』 下, 「인물」, 효자

5)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10월 2일 을묘. “故學生蔡志永贈戶參例兼 故學生蔡弘念贈左承旨 故學生蔡鳳夏贈僕正 已上五衛將蔡東勳三代”

6) 『풍패집록』, 「蔡氏孝烈旌閭記」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 책의 편찬시기는 조선말경으로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을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늦게는 良齋 田愚선생이 1891년에 지은 「跋金孝子行實」이 실려 있다. 全羅監司 徐浩修가 찬한 「希顯堂重修記」 말미에는 개국 505년 丙申(1896)에 휘철되었다고 세필로 표기해 놓았다. 이 세주는 나중에 추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의 편찬 시기는 1890년대경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전주지역의 유적을 탐방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 기문류를 일일이 필사하여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일 것이다. 그는 어느 시점부터인지 기문들을 찾아 필사하기 시작하였고, 1890년대 경에 이것들을 정서하여 묶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 서문에서 南固山城 記文을 새로 만들 때 자료가 없어서 자신이 필사한 기문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 걸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이 책을 편찬한 이유에 대해 서문에서, “伏羲氏와 軒轅氏 때의 역사는 잘 거론하면서도 근대의 글은 잘 외지 못하고, 구역 밖의 일은 자세히 알면서도 향읍의 자취는 잘 말하지 못하니, 博雅에 가까운 자도 면치 못하여 내가 실로 이를 병통으로 여겼다. 이것이 豐沛의 기록을 모은 이유이다.” 라고 하고 있다. 즉 고대의 일은 잘 알면서 근대의 일은 잘 모르고, 나라와 향읍 밖의 일은 상세히 알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이는 박학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한 남고산성 기문의 사례에서 언급하였듯이, 선현들의 기문·題詠 등이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렇게 전주지역 유적에 남아 있는 편액류의 글들을 하나하나 필사해 두면, 남고산성의 기문에서 보듯이 설사 유적의 기문 편액들이 소실되어도 그 글은 남아서 후대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그가 필사한 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통을 등한시한 산업화 등 격동과 풍랑의 세월을 거치면서 전주의 많은 유적과 편액들이 사라지고 이제 『완산지』 등 문헌에 수록된 것들만이 남아 있다. 이제 『풍패집록』에 필사된 전주지역 유적의 기문류 등은 전주의 사라진 유적을 살려내고 복원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 책의 체제는 한 책으로 엮어져 있다. 그 안에 별도로 편을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 즉 그가 서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관아 성격의 기문류와 평강채씨 등 私家의 기문류로 구성되어 있다. 채경묵은 서문에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경기전·조경묘부터 전라감영과 전주동헌, 성문 등의 문루, 군영이 있는 關과 鎭, 선현들의 사당과 私塾, 시문을 짓고 논하는 詩社, 활터 射亭, 향리와 장교[吏校] 근무처, 민간 유람처 등의 상량문, 중수기, 題詠을 모아 1편을 만들고, 평강채씨 자신 가문의 정려·재각의 기문을 비롯하여 전주지역의 충신·효자·열녀의 정려문 등을 수집하여 붙였다고 하였다.

큰 틀은 그러한데, 아직 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관아와 사가의 기문들이 섞여 있기도 하다. 예컨대 관아 기문들이 있는 편에 金孝子行狀錄 行源堂, 趾行堂記 등이 섞여 있다. 행원당은 장한식의 처 채씨의 외조부 효자 金尙麗(1689-1760)의 사당이며, 지행당은 학행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은 강서린의 사당이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가의 기문류에 威鳳鎭重修記 등 위봉산성과 鍊武亭上樑文 등 연무정 기문류 등이 섞여 있다.

이 문헌의 이런 성격은 책의 앞뒤에 있는 목차에서도 보인다. 이 책의 제일 앞장에 이 책에

수록한 글의 목차를 반쯤 기록해 놓고, 편집 순서를 잡아가는 메모가 되어 있고, 제일 뒤에 풍패집록 목차라는 제목하에 이 책에 실린 글의 순서와는 다르게 목차를 잡아 놓고 있다. 이는 완성은 아니지만 향후 간행할 책의 목차를 대략 잡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풍패집록』은 향후 간행을 위해 그간에 유적을 방문하고 기록해 둔 것을 전체적으로 정서하여 『풍패집록』이라는 표제를 붙여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풍패집록』의 내용

『풍패집록』에는 官衙와 私家의 상량문·기문류 108편, 시 69편, 합하여 총 177편의 글이 실려 있다. 상량문과 기문류를 나누어 보면, 상량문 13편, 기문 79편, 묘비문 14편, 운읍 1편, 읍지 1편 등이다.

이를 1907년경에 편찬된 전주의 대표적인 읍지 『완산지』와 비교하면,⁷⁾ 『풍패집록』에만 실려 있고 『완산지』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상량문·기문류 84개, 시 63편이다.([별표] 참조) 상량문·기문류 24개, 시 6편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완산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에 대한 기록이 『완산지』 외에도 있으므로, 자료들을 더 찾아보면 『풍패집록』의 기록 중에 『완산지』 외의 다른 기록에서 찾아지는 것은 있지만 그 숫자는 적으리라고 본다. 근래 전주향교 자료들을 모아 간행한 전주향교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향교에 대한 기록으로 『완산지』에는 없으면서 『풍패집록』에 실려 있는 것이 두 편인데 이 중 한편만이 향교지에 실려 있다.⁸⁾ 향교자료를 모아 놓은 향교지에 이럴 정도면, 『완산지』에 없는 『풍패집록』의 기문 등은 거의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문들을 지은 시점을 보면 『풍패집록』에는 『완산지』와 달리 19세기의 것들이 잘 담겨 있다. 『완산지』는 19세기 초 1907년경에 편찬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18세기 말까지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완산지』에는 『풍패집록』에 수록된 19세기의 기문류가 거의 실려 있지 않다.([별표] 참조) 『완산지』의 기록이 이러한 것은 『완산지』가 18세기말 정조대에 편찬된 전주읍지를 토대로 하고, 인물 등 일부 사항만 더해 1907년경 편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활터 穿楊亭이 『완산지』에 수록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로 생각된다. 천양정 활터가 처음 들어선 것은 1712년(숙종 38)이지만 건립된 지 9년 만에 대홍수로 유실되었다. 이에 이듬해 1722년(경종 2)에 다가산 바로 아래에 多佳亭 활터를 건립하였고, 천양정은 이후 1830년(순조 30)에 가서야 중건되었다. 따라서 『완산지』가 편찬된 연도에 맞게 19세기말의 상황을 잘 담았다면 당연히 천양정을 수록해야 하는데 18세기말에 편찬된 전주읍지를 토대로 편찬하다 보

7) 『완산지』(규장각 12271) ; 이희권역, 『완역 완산지』, 전주시·전주문화원, 2009.

8) 전주향교, 『전주향교지』, 2004.

니 천양정이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완산지』는 전주의 기문들을 전반적으로 수록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기문들을 수록한 것이다. 이것은 읍지에 여러 항목들을 담아야 하므로 그 지역의 기록물들을 전체적으로 수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풍패집록』은 19세기말에 전주 관아와 유적들을 답사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 편액들을 하나하나 필사하여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풍패집록』에는 조선의 전주 풍경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다. 조선말은 아직 조선의 전통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이다. 즉 조선시대 호남제일성 전주의 도시 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이다.

『풍패집록』에 수록된 것들을, 私家의 유적들을 제외하고 관아, 관방, 누정 등을 성격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감영]

선화당 중건상량문, 중건기, 주련
관풍각 詩
연신당 記, 중건기
응청당 시
작청 주련
재가청 시

[전주부영]

동헌 시, 중수기, 吏逋族徵禁斷事, 受教甘結[各宮房於外邑作弊禁斷事],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鄉約條例繪音], 甘結[獄卒輩侵虐罪囚禁斷事], 還上節目, 節目[京邸債捧給事], 鄉任擇出事, 題飲醇堂, 東軒揭板
완부작청 중건기
完山府司 중수기

[중진영]

제남정 기

[전주부성]

공북루(북문) 중수기, 詩
패서문 記
완동문 상량문
풍남문 鐘序, 중수기
명견루 기, 중수기, 상량문

[학교-향교, 회현당, 서원]

부학기
만화루 이건기, 중수기
명륜당 記, 중수상량문, 중수기
양사고 記
회현당 중수기, 사적비문, 흥학계소와 시
화산서원 원정비문

[전묘, 객사]

경기전 환안가요詩序

조경묘 상량문
객사 詩, 서헌기

[활터와 누정]

천양정 중수기, 시
다가정 시
읍양정 시
군자정 이건설상량문

진남루 기
공북정 기, 공북루중수기, 공북루시
한백당 시, 중수기
죽루 기

승금정 상량문, 시, 시사계첩서와 시,
취소정 상량문
비비정 기
죽수정 기
일육정 기

[관방]

남관진 장대 상량문, 관아 상량문
남고산성 만경대석벽 시, 장대 상량문 시, 만역루 신건기
위봉진 중수기, 연무정 기·중수기·송혜문·상량문, 관사중수기
만마관 신축기

[기타]

전주성황사중창기
松廣寺開創碑序并錄
회안대군묘지명
綸音

이상에서 본 것처럼 『풍패집록』에 조선말 전주에 소개했던 관아와 관방, 학교, 누정, 전주 부성 등 제반 건물과 시설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풍패집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말 전통기 전주의 인문 경관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풍패집록』 수록 기문류에서 근래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 더욱 주목되는 것은 宣化堂 柱聯이다. 전라감사의 집무처로 전라감영의 중심 관아인 선화당을 복원하면서 주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문구를 찾지 못하여 붙이지 못하였다. 주련은 시구나 문장을 종이나 판자에 새겨 기둥에 걸어 두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격을 높이는 장식물로 경계와 교훈, 건물 자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전라감영 선화당이 본래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련을 걸어야 하는데, 그 주련문을 그간 찾지 못했다. 선화당 옛 사진엽서에서 주련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글자 판독이 안되었다. 그 전라감영 선화당 주련문이 『풍패집록』에 실려 있다.

『풍패집록』에 수록된 선화당 주련 문구들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면, 전라감사로서의 책무를 담은 것으로 “有經綸濟世才席尊蒼生(유경륜제세재석존창생)”, “以耿介拔俗姿芥視黃金(이경개발속자개시황금)” 등이 있다. 세상을 구할 재주로 못백성들을 높이 여기고, 바르고 강직함으로 황금을 하찮은 풀처럼 여기라는 의미이다.

또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위상을 담은 문구로 “山近豐沛盡是龍鳳之勢(산근풍패진시용봉지세)”, “門列榮戟時有雁鷺之行(문열계극시유안아지행)” 등이 있다. 산의 형세가 풍패(왕조의 발상지)다워 용과 봉황의 형세를 하고 있으며, 집들이 창처럼 줄지어 있어서 기러기 행렬 같다는 것이다.

이 선화당 주련을 짓고 쓴 인물은 전라감사 이돈상(李敦相)이다. 이돈상은 1876년(고종13)에 전라감사에 부임하여 1878년까지 2년여를 재임하였다. 이전에 전주판관도 지냈는데 그 선정비가 복원된 전라감영 경내에 있다. 그는 글을 잘 짓고, 글씨를 잘 썼던 인물로 1866년 경복궁을 재건할 때 근정문 현판을 썼다.⁹⁾

전주 東軒 飲醇堂[豐樂軒]에 걸려 있던 많은 편액들도 주목된다. 『풍패집록』에 유독 동헌에 걸려 있던 편액이 많이 필사되어 수록되었다. 동헌의 편액들은 통치행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 전주지역의 지방통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동헌에는 아전들의 세금포탈을 금하는 일, 환곡, 향입 태임을 비롯하여 지방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나무판에 적어 편액으로 걸어 놓았다. 이들 편액이 이 책에 필사되어 있다. 현재 향교 앞에 이견되어 있는 동헌에 이 편액들을 제작하여 걸면 더 원형에 가까워지고, 동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풍패집록』의 가치

『풍패집록』에는 전주지역의 상량문·기문류 108편, 시 69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 상량문·기문류 84개, 시 63편이 『완산지』에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이며, 『완산지』에 실려 있는 것은 상량문·기문류 24편, 시 6편 정도이다. 『풍패집록』에 수록된 자료들이 대부분 새로운 것들인 것이다. 『풍패집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全州邑志요, 전주 기록물의 寶庫이다.

이 책은 조선말 전주의 인문경관을 저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1차적 기록물이다. 조선말에 전주지역에 소재한 관아와 시설, 누정 등을 답사하고, 거기에 걸려 있는 편액류를 하나하나 필사해 놓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조선말 전주의 경관을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그려낼 수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역사 또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일상사, 미시사가 중시되고 있는 이즈음 조선말 특정 시점의 전주의 도시 경관 전

9) 이돈상은 1868년 전라도우도암행어사로서 만마동에 진을 설치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임피에 어사 이돈상선정비가 철비로 서있다. 이돈상은 증광시 문과에 갑과 2등으로 급제한 엘리트로 이조참판, 대사헌, 대사간, 공조판서, 한성판윤에 오른 인물이다.

반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주의 역사경관을 복원하려 할 때 『풍패집록』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을 편찬한 채경묵은 자신이 필사한 남고산성 기문으로 없어진 편액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였다. 문화의 시대 전통기의 유서 깊은 건물들을 복원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풍패집록』에 수록된 기문류는 호남제일성 전주의 사라진 유적을 복원하고 그 원형을 찾아가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전라감영 선화당 주련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부터가 그렇다. 전주향교 앞에 이 건된 전주동헌도 그러하다.

『풍패집록』은 조선시대 호남제일성 전주의 인문경관을 규명하고, 전주의 문화유산을 복원해 가는데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이 문헌에 수록된 자료들은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것들이다. 이런 문헌이 편찬되고 남아 있다는 것이 전주다움이 아닌가 한다. 우선 이 책을 국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별표] 『풍패집록』 수록 내용과 『완산지』 수록 여부

* 『풍패집록』의 내용을 『완산지』와 비교해 어떤 것들이 이 책에서 새롭게 찾아진 것인가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의 좌측은 『풍패집록』의 내용을 실린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고, 우측은 『완산지』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것이다. 같은 내용이 있으면 『완산지』란에 ‘좌동’이라고 표기하였고, 『풍패집록』란에는 ‘#’ 표시를 하였다.(다른 자료에 있을 때도 # 표시) 같은 항목에서 『풍패집록』에는 없고 『완산지』에만 있는 것은 그 내용을 표기하였다. 『완산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빈칸으로 두었다. 『완산지』에 기문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효자 등으로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명부 수록’이라고 기재해 참고하도록 하였다. 누락되고 잘못 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의 내용과 가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풍패집록	완산지
○拱北樓板上韻 *공복루는 중거문(북문) -1804년 옥과현감 沈公權, 함풍현감 吳淵常 전 라감사 韓用龜의 시 *1775년 전라감사 서호수 공복루 중건	
○拱北樓重修記(2) -1803년 전라감사 韓用龜(記) -1856년 전라감사 金炳喬(記)	
○勝金亭上樑文 -전라감사 李時在(撰) 李三晚(書) *1846년 전라감사 이시재 승금정 건립	
○勝金亭板上韻 -이시재, 曹錫弼, 徐兢輔, 無名氏, 李敦相 洪羲錫, 吳肯默, 李重憲의 시	
○後香詩社稷帖序 -전라감사 李時在(序)	
○後香詩社稷 板上韻 -柳洵, 鄭煥杓, 鄭寅性, 李寬永, 李承慶, 柳相義, 沈敬澤, 朴煥奎의 시	
○吹簫亭上樑文 -1846년 李晚用을 대신해 吳庠秀가 지음. *승금정 동쪽에 있던 육각정.	
○全州沛西門記 -1767년 전라감사 洪樂仁(記)#	○좌동
○完東門上樑文 -1775년 익산군수 李寅燮(撰)#	○좌동
○希顯堂重修記(3) -1739년 전라감사 李周鎭(記)# -1775년 전라감사 徐浩修(記) -1870년 姜駿秀(記) *강준수 기는 흥학계 서, 시 뒤에 있음	○柳恒長 記 (1700년 건립시) ○이주진 희현당중수기(좌동) ○柳一星 희현당중수사적비문 *“희현당중수사적비”(1743년, 신흥교정)

풍패집록	완산지
<p>○希顯堂興學楔序·詩 -1869년 홍문관제학 曹基應(序) -1770년 金時傑, 1833년 徐有槩, 1872년 李鎬俊, 1868년 權鐸圭 1868년 張錫鳳 시 *장석봉 시는 강준수 희현당중수기 뒤에 배치</p>	
<p>○穿楊亭重修記 -1832년 進士 崔錫休(記) ○穿楊亭板上韻 -開都試於穿楊亭偶吟 -1877년 전라감사 李敦相(詩)</p>	
<p>○萬化樓移建記# -1627년 공조정랑 梁夢說(記)</p>	○좌동
<p>○萬化樓重修記 -1832년 유학 李奭淵(記)</p>	
<p>○明倫堂重修上樑文 -1654년 향인 前 현감 洪南立(撰)#</p>	*전주향교지에 수록
<p>○明倫堂重修記 -1654년 前 헌납 李起渤(記)#</p>	○梁克選 明倫堂記(1630년) ○이기발 명륜당중수기(좌동)
<p>○南關鎮將臺上樑文 -1873년 전라감사 李鎬俊(撰)</p>	
<p>○南關鎮衙上樑文 -1873년 전주판관 元世澈</p>	
<p>○南固山城萬景臺石壁題詠 -圃隱 鄭夢周, 盤谷(詩), 1742년 權禎, 1820년 李書九(次韻詩)</p>	
<p>○多佳亭板上韻 -李時在, 金斗鴻(詩)</p>	
<p>○寒碧堂板上韻 -柳穉#, 洪羲錫, 洪錫輔, 尹尙鎭, 洪奭周, 李慶全#, 徐有隣, 申光正, 洪樂性, 李時在, 李 肇源, 柳泰明(詩)</p>	○寒碧堂板上韻 柳穉(좌동), 朴泰淳, 李敬輿, 洪錫輔, 金鎭商 李鼎輔, 權禎, 李慶全(좌동) 시
<p>○揖攘亭板上韻 -知州事 李敦相(詩)</p>	
<p>○飛飛亭記 -宋時烈(記)#</p>	○우암 송시열의 비비정기(좌동) ○전라감사 徐命九의 비비정중수기
<p>○南固山城將臺上樑文 -별장 張永豐(撰)</p>	
<p>○南固山城將臺題詠 -芝浦 朴崙壽, 尹尙鎭, 朴弘陽, 閔胄顯, 李敦相, 竹軒 鄭基永, 羅學敬, 韓應弼(詩)</p>	
<p>○南固山城萬億樓新建記 -1813년 朴崙壽(記)</p>	
<p>○萬馬關新築記 -1814년 金祖淳(記)</p>	
<p>○豐南門鐘序 -1731년 李載厚(序)#, 1793년 李是鍾(識) *父子</p>	○西歸 이기발이 지은 풍남문종서 ○도사 이재후의 종기(좌동) ○관찰사 徐鼎修의 풍남문 鐘銘
<p>○豐南門重修記</p>	○홍낙인의 풍남문 상량문

풍패집록	완산지
-1865년 영중추부사 鄭元容(記)	
○明見樓重修記 -1865년 전라감사 鄭健朝(記)	
○宣化堂重建上樑文 -1771년 전라감사 尹東升(述)#	○좌동
○綸音 -1797년 정조의 윤음을 徐鼎修가 옮겨 씀.	
○觀風閣諸詩 -蘭翁(성명미상)의 시# *완산지에는 난옹 시가 응청당에 수록	○관풍각 -김시걸, 조현명, 심이지의 시 *난옹 시, 응청당에 수록(좌동)
○凝淸卽事 -聖賴(李匡德)#, 芝浦(李在學), 李時在, 朴齊聞, 洪羲錫(詩)	○응청당 -난옹(좌동, 관풍각에 수록), 이광덕의 시(좌동)
○觀風閣醉呈鎮撫使求和 -李美叔, 金士閒, 金士興, 金應淳, 洪子安 鄭範朝(詩)	
○完山燕申堂記 -宋時烈(記)#	○좌동
○燕申堂重建記(3) -1772년 도순찰사 洪樂性(識) -1764년 權辰應(識) -1719년 洪錫輔(識) 李松老(書)	
○客舍原韻 -權克中(詩)#	○객사 權近, 俛長壽, 禪坦, 成任, 李承召, 李春英, 권극중(좌동), 李景奭, 李師命, 朴泰淳의 시
○東軒板上韻 -지주사 李敦相, 任百愚(詩)	
○慶基殿還安歌謠詩序 -전라감사 李慶全(序)#	○좌동
○客舍西軒記 -楸灘 李瓊全# *李慶全으로 誤記	○좌동
○鎮南樓記 -楸灘 李瓊全# *李慶全으로 오기	○좌동
○濟南亭記 -成俔(記)#	○1434년 洪汝方の 기, 盧思愼의 시, 성현의 기(좌동), 이사명·박경후의 시
○拱北亭記 -徐居正(記)#	○좌동 盧思愼, 柳洵, 金時傑 시
○寒碧堂重修記 -전라감사 趙顯命(記)#	○좌동
○明見樓記 -趙顯命(記)#	○좌동
○宣化堂重建記 -1771년 李基敬	
○竹藪亭記#	○좌동 -좌랑 鄭叔周의 序

풍패집록	완산지
○竹樓記 -1785년 趙時偉	
○南門上樑文 -전라감사 趙顯命	
○府學記 -徐居正#	○좌동
○明倫堂記 -梁克選(記)#	○좌동
○希顯堂事蹟碑文# -(유백승)	○좌동 *“완산희현당사적비”(1707년, 신흥교정)
○華山書院院庭碑文 -宋時烈#	○좌동
○養士庫記 -좌랑 柳一相#	○좌동
○趾行堂記	
○完府作廳重建記 -尹東里(撰)	○판관 趙載遇의 중수 상량문
○肇慶廟上樑文 -1771년 조정에서 지어 보냄(*조엄 撰)	
○松廣寺開創碑序并錄 -1622년 申翊星(撰)#	○좌동
○金孝子行狀錄 行源堂 *金尙麗(1689-1760)에 대한 행장	*명부 수록
○在家廳懸板 -1800년 가선대부 張永豐(記)	
○(在家廳)敬次板上韻 -1843년 金宇哲(詩) 蒼巖(書) *이삼만	
○宣化堂楹聯 -전라감사 李敦相(撰并書)	
○營門作廳楹聯 -전주판관 李敦相(書), 진사 河斗永(述)	
○全州東軒重修記 -1759년 尹鳳九(記)#	○좌동
○全州東軒判揭-吏逋族徵禁斷事 -1780년	
○全州東軒板揭-受教甘結 [各宮房於外邑作弊 禁斷事] -1784년	
○全州東軒板揭-御製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 行實鄉飲儀鄉約條例綸音] -1797년	
○全州東軒板揭-甘結 [獄卒輩侵虐罪囚禁斷事]	
○全州東軒板揭-還上節目	
○全州東軒板揭-節目 [京邸債捧給事] -1790년	

풍패집록	완산지
○全州東軒板揭-鄉任擇出事 -1878년	
○題飲醇堂-全州東軒板揭	
○東軒板揭 -1878년 전라감사 李敦相	
○全州城隍祠重創記 -1748년	
○完山府司重修記 -1610년 생원 張應斗(記)#, 진사 張應翼(書)	○좌동(*진사 장응두) *장응두의 아들이 효자 장개남
○柳堤里蔡氏墓閣上樑文 -1879년 河斗永(撰), 5세손 蔡敬默(書)	
○(柳堤里蔡氏)永慕齋記 -1879년 현손 蔡東勳(識)	
○(柳堤里蔡氏)永慕齋序 -前 이조판서 許傳(序)	
○(柳堤里蔡氏)永慕齋序 -1880년 尹沂夏(序)	
○孝子贈左承旨經筵參贊官蔡公弘念旌閭記 -1882년 좌찬성 曹錫雨(記)	*명부 수록
○蔡氏烈行旌閭撰 -이조판서 曹錫輿(撰)	
○邑誌 -蔡弘念, 烈女 蔡氏에 대한 기록	
○蔡氏孝烈旌閭記 -1884년 이조판서 曹錫輿(撰)	
○祭妹張氏婦文 -1884년 蔡敬默	
○全州雨林谷車馬坪金公明元之墓碣銘 -1872년 5세손 金福奎(識)	
○贈通訓大夫軍資監正金海金公河潤之墓銘 -1877년 4세손 金福奎(識), 차자 金箕鍾(書)	
○全州龜耳洞孝子贈童蒙教官隱臯金公箕鍾墓碣銘并書 -이판 徐有熏(撰), 예판 李裕元(書)	*명부 수록
○孝子贈參判金公福奎旌閭記 -1855년 金永坤(識)	*명부 수록
○孝子贈教官金公箕鍾旌閭記 -阮堂 金正喜(書)	
○伊南伊城洞鄭礪山碑文 -1881년 前 이조판서 鄭健朝(撰)	
○沈孝子[沈季賢]碑文 -1835년 洪直弼(撰) *梅山山林丈	*명부 수록
○全州朴孝子晉旌閭記 -1865년 후손 朴必晟(識)	*명부 수록
○湖城君寒村先生李公碑銘(李柱) -1832년 대사헌 宋釋圭(撰)	*명부 수록(명신)

풍패집록	완산지
○永慕堂先生李公墓碣銘 -1804년 판중추겸 이판 李晩秀(撰)	
○西歸李先生墓碣銘 -1836년 대사헌 宋釋圭(撰)	
○君子亭移建上樑文 -1788년 河之經(撰)	
○全州崔孝子性喆性全雙孝閣記 -1838년 李奭淵(書)	*최성철 최성전 명부 수록
○三孝閣記 -1878년 小子 李鎭說(記)	
○孝子贈童蒙教官朝奉大夫金公翊城旌閭記 -1859년 불초자 金暘欽(識)	*명부 수록
○孝婦贈令人礪山宋氏旌閭記 -1874년 불초자 金暘欽(識)	*명부 수록
○一六亭記(3) -1884년 전라감사 金聲根(識) -1884년 杓庭 閔台鎬(記) *민씨적신 -1885년 老樵(識)	
○孝子贈嘉善大夫工曹參判辛景殷旌閭碑記 -1852년 前 이조참의 李裕元(撰)	*명부 수록
○孝子學生卓崔旌閭記 -1883년 9세손 卓仁淳(重修)	*명부 수록
○威鳳鎮重修記 -1811년 별장 金致祚, 절충 張永豐(書)	
○威鳳鎮鍊武亭重修記 1789년 朴相一(記), 절충 張永豐(書)	
○威鳳鎮鍊武亭記 -1830년 별장 朴潤豐(記)	
○威鳳鎮官舍重修記 -1846년 별장 林應振(記)	
○鍊武亭頌惠文 -1882년 鎭將 徐俊淳, 沈履澤 등의 (記)	
○鍊武亭上樑文 -1855년 별장 徐俊豐(撰)	
○懷安大君墓誌銘 -李喜彦, 李光烈 등	
○贈國大夫人全州崔氏之墓 -1815년 前 승지 柳鼎養(撰)	
○跋金孝子行實(金尙麗) -1891년 지평 田愚(題)	
○鄭茶山若庸西繡復命後製進詩 -1794년?	

『全羅監司啓錄』의 구성과 성격

김순석 /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장

『全羅監司啓錄』의 구성과 성격

김순석*

〈목 차〉

- I. 머리말
 - II. 全羅監營 및 兵營 기록물 현황과 『전라감사계록』 書誌
 - III. 『전라감사계록』 내용 구성
 - IV. 啓錄의 의미와 『전라감사계록』 성격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라감사계록』은 1829년(순조29)이후 전라감영에서 執務를 본 여러 監司 중에서 8명의 감사가 국왕에게 아뢰는 글을 모아 놓은 기록이다. 조선시대 8도에 두었던 감사는 行政·刑政·軍政을 통할하며 국왕의 통치행위를 대리하는 왕권 使臣이었다. 全羅道 觀察使 또는 全羅監司라는 명칭은 전국의 8도 지방 제도가 1895년 6월부터 23부제 또는 府郡制로 개편되기 전까지 해당되며 이 이후는 전라도 관찰사는 전라북도 관찰사, 전라남도 관찰사로 나뉘어 임용되었다. 그러므로 『전라감사계록』은 지방제가 개편되기 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전라감사의 啓錄이다. 한편 1392년 조선 건국 후부터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조선왕조 518년 동안 전라도 지역에 감사로 임용된 자는 총 578명이고 부임한 자는 연인원 497명, 미부임자는 8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전라감영은 조선 초 건립되어 1951년까지 유지되다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2020년에 8도 감영 중에 유일하게 초기 세워진 그 자리에 복원되었다. 감영 복원이 갖는 의미는 전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선명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하면 전주한옥마을로 대표되고 있는 작금에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남아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전주의 역사와 단절시키지 않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를 총괄했던 전주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복원된 전라감영을 전주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감

10)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23(2), 46쪽.

영의 역사와 감사들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콘텐츠 소재를 발굴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감사계록』 사료에 대한 내용소개와 기록의 의미와 문서식을 분석하는 성격 연구는 하드웨어 전라감영에 역사와 시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전라감영 활용에 작은 초석이 되고 전라 감영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Ⅱ. 全羅監營 및 兵營 기록물 현황과 『전라감사계록』 書誌

1. 현존 전라감영 및 병영 啓錄 사료

조선시대 전라감영과 국왕과의 관계에서 문서 발신의 주체가 전라감사·전라감영·전라병영인 현존 啓錄을 살펴보면 국사편찬위원회 각사등록 내에서 <표-1>과

<표-1> 현존 전라감영 및 전라병영 啓錄

기록물 명	청구 기호	편저자/ 筆寫本	간행연대	책권 수	기록 내용
湖南啓錄	古4255.5-12-v.1-4	全羅監營	高宗22年-24年(1885-1887)	4	1885年(高宗22) 2월부터 1887年 4월까지 全羅道 監營에서 올린 啓文을 모아 옮겨 적은 책
全羅監司啓錄	奎15095-v.1-7	備邊司	純祖29年-高宗26年(1829-1889)	7	1829年 8월부터 1889年 4월 사이에 全羅監司가 올린 狀啓를 備邊司(1864년 이후는 議政府)에서 기록한 책
全羅左水營啓錄	奎15097-v.1-5	備邊司	哲宗1年-高宗29年(1851-1892)	5	1850年(哲宗元年) 2월부터 1892年(高宗29) 9월까지 약 42년간에 걸쳐 23인의 全羅左道 水軍節度使가 그 在任時에 承政院에 올린 啓錄을 離任무렵에 모아 만든 책
全羅右水營啓錄	奎15098-v.1-2	備邊司	哲宗4年-13年(1853-1862)	2	全羅右水營(해남)의 水軍節度使가 承政院으로 올린 狀啓 중 1853年(哲宗4) 3월 28일부터 1862년 9월까지 약 8년여의 것을 모아 만든 책
全羅兵營狀啓臚錄	奎15096-v.1-4	全羅兵營	高宗7年-30年(1870-1893)	4	1834年(純祖34) 1월 24일부터 1893年(高宗30) 4월 23일 사이에 재임한 8인의 兵馬節度使가 그 재임시에 承政院으로 올린 狀啓의 臚錄을 모아 만든 책

같이 『湖南啓錄』, 『全羅監司啓錄』, 『全羅左水營啓錄』, 『全羅右水營啓錄』, 『全羅兵營狀啓臚錄』 등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전라병영에 관계된 것 중 한국학규장각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全羅左水營來關錄』 청구기호 奎15124는 1책으로 1875년(高宗12) 9월에서 1877년(高宗14) 2월 사이에 全羅左水營과

議政府이 주고받은 關文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인데, 일부만 전라좌수영이 발신하였고 주로 의정부의 관문을 수신하였기 때문에 <표-1>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전라남북도를 아울러 중앙 관서에 보고한 것과 중앙에서 전라감영·병영에 보내온 문서를 모아놓아 전라도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기록물이지만 문서 발신 주체가 전라감사나 전라감영이 아니므로 『全羅道關草』, 『全羅南北道各郡報告』, 『全羅南北道各郡訴狀』, 『全羅北道宣諭日記』, 『湖南賑飢錄』 등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현존 전라감사 일기류

감사의 기록물로 감영이나 병영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현존 전라감사의 기록물은 <표-2>와 같이 柳希春의 『眉巖日記』, 李錫杓의 『湖南日記』, 李相璜의 『湖南日記』, 徐有渠의 『完營日錄』 등 4명의 일기류가 있다.

<표-2> 현존 전라감사 일기류

이름	기록물 명 /소장처	기록시기	특징
全 羅 監 司 日 記 類	柳希春 眉巖日記 /국립중앙도서관	1571(선조4).4- 10(7개월)	종합 생활, 가장방대하고 솔직한 개인 일기, 보물 제260호. 전라 감사 재임기의 내용이 간략이 기술되어 있음. 『미암집』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13년 번역 출간됨.
	李錫杓 湖南日記 /국립중앙도서관	1750(영조26).5- 1751(영조27).1 (8개월)	감사 부임시 교귀(交龜) 의례와 망하례 의장(儀仗)정황을 자세히 기록. 사후에도 15일간 기록됨.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李相璜 湖南日記 /국립중앙도서관	1810(순조10).7- 1812(순조12).3 (20개월 13일)	여러 사람이 필사함. 감사 업무 전반을 살필 수 있으나 공문서 양식은 많지 않음.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徐有渠 完營日錄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1833(순조33). 4- 1834(순조34).12 (21개월)	관아 일지 형식. 21개월 재임 동안 거의 매일 사적인 내용 없이 공문서만을 취사선택하여 15종 1,071건으로 기록한 감영 기록의 독보적 기록물. 풍석 총서 번역서1로 흐름출판사에서 2018년에 출간됨.

<표-2>의 전라감사 일기류 가운데 『미암일기』는 미암 유희춘이 쓴 일기로 1567년부터 1577년까지 10년간에 걸친 유희춘의 일상과 당시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11책으로 보물 제260호이며 이 일기가 일부 들어있는 『미암집』이 번역되어 한국고전종합DB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석표 감사가 쓴 『湖南日記』와 이상황 감사가 쓴 『湖南日記』는 이름이 같지만 작성 시기가 다르고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 이미지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석표 감사는 부임과정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이상황 감사는 감사 전반의 공무를 살펴볼 수 있다.

『완영일록』은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재임 시기 공문서만을 선별하여 날짜별로 기록한 책이다. 이를 통해 전라도 관찰사의 직무와 전라 감영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서유구 감사는 1833년(순조33) 4월 10일에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834년(순조34)

12월 30일까지 21개월 동안 재임하였다. 그 기간 관찰사로서 56개 고을 수령, 각 군영·진영장, 국왕 등에게 주고받은 공문서 가운데 선별하여 내용을 요약한 총 15종 1,071건¹⁾의 공문서를 날짜별로 정리 기록하여 전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감영 문서의 서식과 내용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

3. 『全羅監司啓錄』 書誌 정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全羅監司啓錄』, 청구기호(奎 15095-v.1-7)는 1829년(순조29) 8월부터 1889년(고종26) 4월 사이에 전라감사 8명이 국왕에게 올린 狀啓를 비변사에서 기록하였고, 1864년 이후는 의정부에서 기록한 7책의 필사본이다. 간행자는 미상이며, 책 크기는 43.4×31.6cm이다.

表題가 제1·4·5·6·7책은 『全羅監營啓錄』이고 제2·3책은 『各道啓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기호로 찾으면 『全羅監司啓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 기록물의 명칭을 『全羅監司啓錄』으로 통일시키기로 한다.

각 책은 전라 감사가 재임 시에 장계한 여러 권의 啓錄 중 1卷만 전해지고 있고 나머지 권 수는 빠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각사등록』²⁾ 전라도편¹⁾’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원문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全羅監司啓錄』 7책에 대한 감사별 장계를 올린 시기, 표제명, 원문의 구성은 <표-3> 과 같다.

<표-3> 『全羅監司啓錄』 원문 구성

전라 감사	계록 시기	책별	원문 구성 내역	원문 글자수	비고
趙寅永 第二卷	1829(순조29).8 ~11(4개월)	책1	25행*13열 *300면	97,500	(標題) 『全羅監營啓錄』
金景善 第五卷	1845(헌종11).7 ~12(6개월)	책2	24행*13열 *131면	40,872	(標題) 『各道啓錄』
洪羲錫 第一卷	1847(헌종13).3 ~5(3개월)	책3	24행*13열 *146면	45,552	(標題) 『各道啓錄』
南秉哲 第一卷	1849(헌종15).1 ~7(7개월)	책4	24행*13열 *128면	39,936	(標題) 『全羅監營啓錄』
鄭基世 第一卷	1854(철종5).2 ~1855.2(13개월)	책5	22행*13열 *352면	100,672	(標題) 『全羅監營啓錄』
鄭範朝 第一卷	1876(고종13).2 ~7(6개월)	책6	25행*13열 *58면	18,850	(標題) 『全羅監營啓錄』
尹榮信	1885(고종22).2 ~1887.3(26개월)	책7	25행*13열 *396면	128,700	(標題) 『全羅監營啓錄』
李憲植	1887.3~1889(고종26).4(26개월)				
『全羅監司啓錄』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			원문 면 수 : 1,511면 원문 글자 수 : 472,082여 자		

1) 徐有渠 著/김순석 외 역주, 『안영일록1』(흐름출판사, 2018), 14-15쪽.

2)各司啓錄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와 지방관아 혹은 지방관아간 주고받은 공문서 모음집으로 보고서, 청원서, 회신·명령 자료를 각 도별로 구성하여 간행하였다.

제1책은 전라 감사 조인영 기록 第二卷(1829년(순조29) 8월~11월), 제2책은 전라 감사 김경선 기록 第五卷(1845년(헌종11) 7월~12월), 제3책은 전라 감사 홍희석 기록 第一卷(1847년 3월~5월), 제4책은 전라 감사 남병철 기록 第一卷(1849년 1월~7월), 제5책은 전라 감사 정기세 기록 第一卷(1854년) 2월~1855년 2월), 제6책은 전라 감사 정범조 기록 第一卷(1876년 2월~7월), 제7책은 윤영신과 이헌직 감사의 기록이 묶여 있는데, 원문 정보 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전라 감사 윤영신 기록(1885년 2월15일~1887년 3월)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원문에는 1885년 2월 15일부터 나오는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 복사 서비스 자료에서는 4월 14일부터 기록이 보이고, 전라 감사 이헌직 기록(1887년 3월 18일~1889년 4월)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원문에는 1887년 3월 18일부터 나오는데,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 복사 서비스에서는 4월 24일부터 시작되고 있어 한국데이터베이스 원문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이미지 서비스 간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Ⅲ. 『전라감사기록』내용 구성

1. 『전라감사기록』 주요 내용³⁾

1) 農形 및 雨澤 보고와 王命을 공경히 받았다는 보고

농업사회였던 조선 시대는 풍흉이 국왕의 지대한 관심이었다. 전라도 관찰사의 주요 직무 또한 지방민들에게 농사를 권면하고 국왕에게는 농형을 수시로 보고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농사철에 비의 양을 파악하는 우택 상황, 천문을 살피며 일식과 월식, 기우제 등의 진행 상황은 중요 보고 사항이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전라 감사의 농형 보고 내용과 우택 보고에 사용된 계량 단위와 측우기의 사용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내린 비의 양의 계량 단위를 쟁기로 한 번 땅을 파는 깊이만큼 빗물이 땅에 스며들었을 경우를 일려(一犁), 호미로 땅을 파는 깊이만큼 일서(一鋤), 먼지를 적실 정도 등과 더불어 측우기(測雨器)를 통한 몇 치 몇 분이라는 빗물 계량 단위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광 9년(1829) 8월 13일】

도내의 농사 형편과 신의 영하에 이달 8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10일 묘시에 이르러서는 측우기 수심이 8치 6분이었는데 먹구름이 걸히지 않아 아직도 더 내릴 듯하다는 연유를 이미 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시에 그대로 활짝 갓습니다. 잇달아 각 읍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8일·9일·10일에 내린 비는, 전주 등 44개 읍진(邑鎭)에는 하천과 도랑에 물이 불어 넘쳤으며, 무주 등 5개 읍에는 2려(犁)가 내렸으며, 용안·옥구·보성 등 3개 읍에는 1려가 내렸습니다.”

3) 趙寅永 著/김순석 외 역주, 『전라감사기록1』(흐름출판사, 2019), 15-29쪽 참조 재구성.

라고 하였습니다.

우연(右沿)의 제읍(諸邑)은 오랫동안 가물다가 <중략> 그 밖에 각 읍의 저습하여 물에 잠겼던 곳은 다행히 곧장 갠지만 간간이 독이 무너질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치달합니다.

【합풍 4년(1854) 4월 13일】

이번 4월 8일에 좌부승지 홍익섭(洪翼燮)이 성첩(成貼)한 유지(有旨)에,

“경이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려보내는 일로 치계하였는데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인정과 도리는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번임(藩任)은 가벼이 체직(遞職)할 수 없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라고 한 유지를 이달 13일에 신이 전주부에서 공경히 받았습니다.

2) 奉審, 薦新, 祭享, 反庫, 箋文, 褒貶 등을 보고

전라감사는 매월 초하루 진상 삭선을 봉심하고 매월 1일과 15일에 망궐례를 행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慶基殿에서 薦新과 추석제를 거행하는 등 각 달에 행하는 각 도의 각 제향일을 준수하고 보고 하였다. 신관 수령이 부임하면 감사는 차사원을 정해 신관과 眼同하여 번고(反庫)하여 啓聞하고, 6월 15일과 12월 15일 예하 수령들에 대한 포폄장계를 올린 내용을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광 9년(1829) 8월 15일】

“오는 9월 초하루 진상 물종(進上物種) 중의 석류와 9월령(月令) 천신 진상(薦新進上)인 석류는 절기가 아직 일러 다 익지 않았기에 기한에 맞춰 봉진(封進)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봉진해야 할 각 읍에서 똑같은 말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석류가 다 익으면 즉시 봉진하라는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였습니다. 막중한 진상을 기한 내에 봉진할 수 없게 되어 황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치달합니다.

【도광 9년(1829) 8월 15일】

삼가 상고할 일을 아뢰입니다. 이번 8월 15일에 경기전 추석제(秋夕祭)를 설행(設行)하였습니다. 전물(奠物)을 정갈하게 마련하고 제관(祭官)을 차정(差定)하여 예문(禮文)에 따라 설행한 뒤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의 직(職)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합니다. 헌관은, 신이 신병(身病) 때문에 일을 거행할 수 없어 예차(預差)인 중영장(中營將) 권호(權灝)를 실차(實差)로 올려 거행하였습니다. 막중한 제향을 이렇게 대신 거행하게 되어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삼가 갖추어 신문(申聞)합니다.

【도광 9년(1829) 9월 1일】

삼가 상고할 일을 아뢰입니다. 《대전통편》 창고조에,

“수령이 교체된 뒤 관찰사는 차사원을 정해 신관과 안동(眼同)하여 번고(反庫)하고 계문(啓聞)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내의 수령 중에 교체된 영광군의 번고 차사원을 함평 현감 이광룡(李光龍)으로 차정하여 신임 군수 김유헌(金裕憲)과 안동하여 번고한 뒤에 각종 곡물의 분류(分留)한 실제 수효를 성책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감영에 있는 회안(會案)을 기준으로 대조해 보니 특별히 서로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성책은 해조(該曹)에 올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삼가 갖추어 신문합니다.

【합풍 4년(1854) 5월 7일】

제주 목사 목인배(睦仁培)가 봉진하는 이번 5월 15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탄신에 올리는 진하 전문(陳賀箋文) 1통이 지금 막 나왔기에 청암 찰방(靑巖察訪) 이정후(李庭堉)를 차사원으로 정해 재봉(齎封)하여 올려보냈습니다.

【합풍 4년(1854) 6월 6일】

도내의 도사(都事)·수령(守令)·찰방(察訪)·영(令)·별검(別檢)·참봉(參奉)·소모별장(召募別將)·심약(審藥)·검률(檢律)·순영(巡營) 소속 아병장관(牙兵將官) 등의 이번 갑인년 춘하등 포핍(春夏等褒貶)을 규례대로 봉진합니다. 도사는 아직 차임(差任)되지 않았고, 경기전 영(慶基殿令) 정의관(鄭義觀)은 부임하지 않았으며, 능주 목사 이병례(李秉禮)·순천 부사 신석희(申錫禧)·영광 군수 김회명(金會明)은 도입(到任)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모두 등제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 3개 읍의 수령·만호(萬戶)·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심약·검률 등의 포핍은 모두 동 주(州) 목사 목인배의 첩정대로 개좌(開坐)하여 보고합니다. 그런데 동 주의 명월진 만호(明月鎭萬戶) 신성흠(愼性欽)은 '근무일수가 적음(日淺)'이라 써 넣었고, 교수는 본주(本州) 판관이 겸임하고, 훈도(訓導)는 헛수가 오래되었으나 차임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도사가 포핍 좌기(褒貶坐起)에 동참하는 것은 본래 법례인데 도사가 아직 차임되지 않았기에 신(臣)이 삼가 스스로 베껴 썼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합니다.

3) 試取 및 異國船 출몰 보고

관찰사는 공도회(公都會)와 도시(都試)를 설행하여 거행하고 합격자를 개록(開錄)하여 국왕께 보고하였다. 공도회는 조선 시대에 관찰사, 유수(留守)가 해마다 관내(管內)의 유생들에게 보게 하던 소과 초시(小科初試)이다. 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합격자는 다음 해 생원시와 진사시의 복시(覆試)를 치를 수 있었다.

도시는 중앙에서는 병조(兵曹)와 훈련도감(訓練都監)의 당상관(堂上官), 지방은 관찰사와 각 진영(鎭營)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매년 봄과 가을에 무사(武士)를 선발하는 제도이며, 유엽전(柳葉箭), 기추(騎藹), 편전(片箭) 등으로 시험을 보았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광 9년(1829) 10월 10일】

삼가 상고할 일을 아뢰입니다. 공도회(公都會) 승보 복시(陞補覆試)는 도사(都事)가 으레 시험을 주관하는데, 만약 유고가 있으면 도신이 시험을 관장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되었습니다. 도사 이종심(李宗心)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무자·기축 양년 조 복시는 도회(都會)를 전주부에 정하고,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날짜를 나누어 설행하였습니다. 신이 참시관(參試官)인 무안 현감 심계석(沈啓錫)·청암 찰방 최치보(崔致輔)와 안동(眼同)하여 함께 시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제술(製述) 각 8인과 고강(考講) 각 2인은 분수가 가장 많은 자로 전례대로 시취(試取)하고, 성명·나이·본관·거주지·부명(父名)·지원한 시험을 아울러 뒤에 개록하였습니다. 무자년·기축년조에 입격한 자 중에 우등(優等)한 시부(詩賦)는 베껴 성책하여 규장각(奎章閣)에 올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도광 9년(1829) 11월 4일】

삼가 상고할 일을 아뢰입니다. 본도 선무군관 도시(選武軍官都試)와 전주·나주·광주·남원의 사장관 도회의 무자년조 및 기축년조를 전례에 의거하여 나누어 설행하였습니다. <중략> 양년 조의 거수(居首) 및 지차인의 성명·나이·본관·거주지·부명(父名)·화살 수와 지차 5인의 성명·거주지는 모두 연조(年條)를 구별하여 뒤에 개좌(開坐)하였습니다. 거수

각 1인은 직부전시(直赴殿試)하고 지차 각 1인은 직부회시(直赴會試)하는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그 나머지 10인은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모두 기축년 당년의 신포(身布)를 제감(除減)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

【도광 25년(1845) 7월 22일】

강진(康津) 지방 신지도(薪智島) 관내(管內) 여서도(麗瑞島) 앞바다에 이국선 1척이 곧바로 돌아간 뒤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 단을 쌓은 형지(形止)를 지방관에게 관문으로 신척하여 달려가 적간하여 건어내게 하고, 회보(回報)를 기다려 잇달아 논감(論勘)할 예정이라는 연유는 전에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4) 刑政 및 軍政 보고

감사의 업무량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옥사(獄事)에 관한 기록이다. 서유구 감사가 기록한 『완영일록』에서 가장 많은 문서는 형사 사건의 처결문인 題音(테깁)이었다.

관찰사의 살옥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① 살옥 사건 보고를 받음 ② 조사 보고를 형조를 통해 국왕께 보고 ③ 국왕이 판하하기 전에 재조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형조 관문으로 관찰사에게 내림 ④ 재조사의 경우 보통은 제3검험, 필요시 제4검험까지도 조사 ⑤ 특별한 경우 회사관을 정하여 회사(會查) 실시 ⑥ 관찰사가 처결을 내려 주는 제송(題送) ⑦ 살인의 원인과 정황을 조사하여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의견서인 발사(跋辭)⁴⁾를 작성 하여 국왕께 보고 ⑧ 발사 이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추문(推問)하여 고찰한다는 의미의 추고차(推考次)를 실시 ⑨ 추고차 후 다시 추문(推問)하는 갱추(更推) 실시 후 내용을 아뢰는 백등(白等) 문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살옥 사건은 2년간 89차례의 형신(刑訊)을 받기도 하고 7년간 137차례의 형신 사례가 있고, 심지어 옥사(獄事)가 30년간 진행되며 1,004차례의 형신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조선 시대 살옥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엄격함을 엿볼 수 있다.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하기도 했던 전라감사는 봄가을에 군사 조련을 행하였고 때로는 군사 조련을 제언(堤堰) 공사로 대체하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광 9년(1829) 11월 21일】

〈중략〉

윗 조목 흥덕현의 살옥 죄인 노비 강태윤의 옥사는 다시 더 엄히 조사하여 추후에 보고할 계획이라는 연유를 전 도신 서경보(徐耕輔)가 재임할 때에 이미 치달(馳達)하였습니다. 조사관으로는 흥덕 현감 김규집(金奎集)과 정읍 현감 이진원(李震遠)을 차정(差定)하여 관문을 보냈습니다.

4) 발사(跋辭) : 검관(檢官)이 살인의 원인과 정황을 조사하여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의견서로, 발미(跋尾)라고도 한다. 발사는 서울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모두 등사하는데, 단(段)을 따라 작은 황침지를 써서 붙였다. 관찰사 서경보(徐耕輔)의 이번 발사 후 후임 관찰사 조인영(趙寅永)은 다시 본 사건의 추고와 갱추를 하고 그 내용을 도광 9년(1829) 11월 21일에 다시 보고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 곧 1827년 4월 25일 사건 발생, 26일 김 조이 사망, 4월 26일-초검(흥덕 현감 노익엽), 4월 29일-복검(무장 현감 황오민), 5월 8일-삼검(고부 군수 이조식), 5월 17일-사검(영광 군수 업도), 윤5월 9일-회사(초복 삼검관), 6월 2일-회추(초복 삼사검관), 1829년 1월 전임 도신 서경보의 발사, 형조의 관문으로 조인영 부임 후 1829년 7월 3일 다시 추고와 갱추를 거쳐 도광 9년(1829) 11월 21일에 발사의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옥사의 근본 원인은 정범인 노비 강태윤이 손으로 정 조이의 귀뿌리를 때려 당일 밤에 죽게 한 것입니다. 정해년(1827, 순조27) 4월 29일에 수감하고, 89차례 형신을 받음.

【도광 9년(1829) 11월 21일】

〈중략〉

사관은 전 김제 군수 정연시(鄭淵始)와 대신 현감 서호순(徐灝淳)으로 이미 차정하여 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근본 원인은 정범 송죽간이 오봉이(吳奉伊)를 무릎으로 짓찧어 5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고 신사년(1821, 순조21) 12월 13일에 수감되고 137차례 형신을 받았습니다.

【도광 9년(1829) 11월 21일】

〈중략〉

임실(任實).

죄인 정명채(鄭明采)가 양 조이(梁召史)를 구타하여 그날 밤에 죽게 함. 경신년(1800, 순조 즉위년) 8월 24일 수감하여 1,004차례 형신을 받음.

이 옥사의 근인(根因)은, 경신년 8월 24일 임실현 유향소(留鄕所)의 치보(馳報)와 해현(該縣) 검임 순창 군수의 문장(文狀)에 “본현 신평면(新平面) 면임(面任)의 문장에 ‘본면 도마교리(道馬橋里)에 사는 양 조이가 이번 8월 18일 그의 남편 정명채에게 구타를 당하여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이 옥사는, 단안이 이미 사형에 관계되고 성옥(成獄)한 지 이미 30년이 되었으니 지금 억지로 의안(疑案)을 일으켜 갑자기 유경(惟輕)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처를 죽인 자는 죽이고, 첩을 죽인 자는 유배한다는 것은 모두 확일한 경법(經法)입니다. 〈중략〉 이것이 그동안 도신이 혹 부생(傅生)의 의문이 있었으나 아마도 옥체(獄體)의 지중함 때문에 한쪽만 치우치게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감히 마음대로 편히 처리할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쭙어 처리하게 하십시오.

〈하략〉

【도광 9년(1829) 10월 19일】

〈중략〉

전에 접수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것임. 본사의 계사(啓辭)에, ‘각 도의 추계 습조(習操)를 품의하는 장계가 지금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중략〉

“금년 가을 수군과 육군이 관문(官門)과 진문(鎭門)에서 취점(聚點)할 때 궤오(關伍)를 보충하고 기계를 정비하는 데에 특별히 더욱 관심을 두어 거행하라.”라고 각 해당 영읍진에 낱낱이 들어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동 수군과 육군이 모여 점열하는 일자는 정식에 따라 각자 속한 영곤(營關, 감영과 병영)은 같은 날에 거행하되, 병영은 10월 1일에, 좌수영과 우수영은 8월 20일에 기일을 정해 설행하였습니다.

〈중략〉

2. 『전라감사계록』감사별 세부 내용 비교

1829년 8월부터 1889년 5월까지 8명의 전라감사가 기록한 『전라감사계록』 7책의 총 문건수는 <표-4>에서 보는 바와같이 1,1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1개월 임기 내 서유구 감사가 기록한 『완영일록』 8책 1,071건 보다는 많다. 그러나 이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록 기간이 다르지만 서유구 감사는 국왕뿐만 아니라 하급관청 나아가 私人 재판 처결문인 題音까지 기록하였고, 『전라감사계록』은 오로지 국왕과 왕실에 아뢰는 啓文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啓文 1,134건 가운데 行政 문건이 991건, 刑政 문건이 71건, 軍政 문건이 26건, 王命을 받았다는 문건이 14건으로 나타나 행정 문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군정 문건은 춘추에 행하는 군대 조련만 기록되어 26건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행정 문건 중에는 수령의 부임 사실 보고와 동시에 감사는 창고의 물품을 신임 守畧과 眼同하여 보고한 문건, 旌閭 등의 문건이 391건으로 가장 많아 관리들의 이직이 많았고 부임 사실을 반드시 보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례, 천신, 봉심 등의 문건이 190건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절기를 따라 상납하고 정기적 의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중시되었던 농형과 강수량의 보고 문건은 177건으로 나타나 16%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농형보고와 救蝕례가 이어진 사례들로 추정하면 雨澤 보고는 가뭄이 그만큼 우려되었던 상황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4> 『전라감사계록』의 감사별 문서 세부내용 비교

감사(계록시기) /계록내용(건수)	趙寅永 (1829.8 ~11) 4개월	金景善 (1845.7 ~12) 6개월	洪義錫 (1847.3 ~5) 3개월	南秉哲 (1849.1 ~7) 7개월	鄭基世 (1854.2 ~1855.2) 13개월	鄭範朝 (1876.2 ~7) 6개월	尹榮信 (1885.2 ~1887.3) 26개월	李憲植 (1887.3-1889. 5) 26개월	계록 누계	
行政	農形 雨澤	9	9	10	27	35	24	27	36	177
	褒貶		6		11	23	9	43	15	107
	賑恤	1	8	5	2	39	1	3	15	74
	祭禮薦 新奉審	8	10	7	16	46	16	46	41	190
	納稅 還穀	1	2	3	4	13		7	8	38
	試取	4	5			5	1	2	12	29
	箋文	1	1	1		6	1	10	4	24
	異國船	4	7		5	9	6		2	33
赴任 反庫 旌閭외	19	10	5	11	44	12	120	98	319	
刑政										
	殺獄 定配외	7	2	11	5	28	5	4	9	71
軍政										
	習操	1	1	1	2	5		8	8	26
王命										
		1	1		11	7		12	14	46
감사별누계(건)	56	62	43	94	260	75	282	262	1,134	

감사가 예하 수령들을 다스리는 중요 행정 행위인 포폄 문건은 107건으로 나타났고 8명의 감사 가운데 조인영, 홍희석 2명은 포폄 문건이 없고, 운영신 감사가 43 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기세 감사가 23건, 이현직 15건, 남병철 11건, 정범조 9건으로 나타났다. 포폄은 6월 6일과 12월 15일에 정기적으로 행해야 하는 관계로 감사는 포폄 전 50일의 재임 기간이 차야 等第할 수 있도록 『經國大典·吏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폄 문건이 없는 것은 재임 기간과 포폄 시기가 맞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감사 운영신과 이현직은 모두 26개월 재임에 4번의 포폄 기회가 있었으나 운영신 감사는 1886년 6월 춘하등 포폄 등제 문건이 없고, 이현직 감사는 1887년 춘하등 포폄 등제 문건만 있고 1888년 춘하등과 추동등 포폄등제 문건이 없어 문건의 수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남병철, 정기세, 정범조 감사 등은 재임기간에 맞게 봄·가을 포폄 행정을 잘 이행했음을 볼 수 있다.

재임 기간 문건 수가 가장 많은 감사는 26개월 재임에 282건의 문건이 있는 운영신, 그 다음이 26개월 재임에 262건인 이현직, 13개월 재임에 260건 정기세, 7개월 재임에 94건 남병철 순이었고, 가장 적은 문건 수는 3개월 재임에 43건 홍희석 감사로 나타났다.

IV. 啓錄의 의미와 『전라감사계록』성격

1. 啓錄의 의미

조선시대 전기 신하가 국왕에게 구두나 문서로 아뢰는 말이나 내용을 啓辭라고 하고⁵⁾ 아뢰는 일을 계문(啓聞), 아뢰는 글월은 계문(啓文)으로 통칭된다. 그러므로 계록은 일반적으로 啓辭나 啓文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하가 국왕에게 아뢰던 말의 의미로 사용되던 계사가 문서로 발전한 것은 中宗이 司謁대신 承旨를 통하여 아뢰게 하면서부터이고, 문서로서 계사는 中央官府文書의 일종으로 중앙관부의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 요청, 문의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⁶⁾

全羅監司는 중앙관부의 신하가 아님에도 계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전라감사는 『經國大典』 吏典에 중2품아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直啓權이 있는 直啓衙門이기 때문이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에서는 직계아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품아문은 직계하여 【중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도 직계할 수 있고,各司에 긴한 일이 있으면 提調가 직계하되 大事는 啓本式으로 小事는 啓目式으로 작성하는데, 외직은 啓目式이 없음】 상급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문을 移牒하지만 【相考事 외에는 모두 아뢰】 나머지 衙門은 모두 소속 관아에 보고한다. 모든 중앙과 외직의 공문서는 동등 이하는 關文을 사용하고 동급 이상에게는 牒을 사용하며 7품 이하에게는 帖를 사용한다. 【지방관은 奉命使臣에게, 중앙·지방의 諸將은 병조에게 모두 첩정 문서를 사용하고 五衛都摠府에게는 關文을 사용함】 官府의 문서는 모두 立案을 두어 뒤에 고려할 수 있는 전거로 삼는다.”⁷⁾

5)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37(2010), 129쪽.

6) 이강욱, 앞의 논문, 126쪽.

여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중앙과 지방관 중 2품아문이 국왕에게 직계할 때, 직계방법, 직계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곧, 전라감사가 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직계하되 啓目식이 아닌 啓本식으로 하며 승지가 있는 兒房이나 상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문서를 移牒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이강욱(2010)의 啓辭 문서식 견해⁸⁾를 따르면 전라감사의 계사 문서는 非兒房啓辭의 書傳啓辭로 분류할 수 있고, 감사는 都提調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한 衙門에서 아문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으로 직접 나아가지 않고 本衙門에서 승지와 승전색을 청하여 계사를 올리는 아문으로 볼 수 있다.

2. 啓本과 啓目的 문서식

일반적인 문서의 구성요소는 발급자와 수취자, 기두어와 종결어, 전달 사항, 인장과 서명, 작성일자 등이 있다.⁹⁾

국왕에게 直啓할 수 있는 2품 衙門이라도 外職과 內職에 따라 문서식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왕에게 아뢰는 문서는 啓文이지만 이를 세분하면 상황보고의 아뢰이거나, 국왕에게 요청하거나, 국왕의 의향을 여쭙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주로 監司 같은 외직이 사용하며 주로 ‘아뢰거나’, ‘요청’ 하는 내용의 啓本 문서식과 내직이 쓰며 주로 ‘여쭙거나’, ‘아뢰는’ 내용의 啓目 문서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啓文 내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전개되는 문서식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啓文 맨 앞에 들어가는 起頭語, 내용 전개 방식, 終結語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經國大典』과 『典律通補』에서 규정한 啓本식과 『奎章閣志』에 기록된 啓目식을 살펴보면, 계본과 계목은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으로 일반적 의미는 같다. 그러나 계본은 주로 狀啓 문서처럼 관찰사·병사·수사 등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요청하는 문서에 많이 나타난다. 문서를 시작하는 起頭語로 ‘謹啓爲某事[삼가 某에 대한 일을 아뢰입니다]’, ‘謹啓爲相考事[삼가 상고할 일을 아뢰입니다]’로 시작하여 문서 말미에 다음과 같은 투식구가 들어간다. ‘謹具啓聞[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詮次善啓[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자세히 아뢰입니다]’, ‘緣由馳啓[연유를 급히 아뢰입니다]’, ‘令該曹稟處爲白只爲, 緣由謹具啓聞[該曹에 명하여 품처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연유를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 등이다.

반면 계목은 外職을 제외한 2품 衙門이 주로 작성하며 아뢰는 주체로 閣臣이나 承傳色의 이름이 기록되고 문서를 시작하는 기두어로 ‘承旨啓曰[승지가 아뢰기를~]’, ‘以某言啓曰[某에 대한 말을 아뢰기를~]’로 시작하여 종결어는 ‘何如[어떻겠습니까]’, ‘敢稟[감히 여쭙니

7) 『經國大典』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 各司有緊事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外皆啓】, 其餘衙門竝報屬曹. 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兵曹, 竝用牒呈, 都總府, 用關】. 官府文字, 竝置立案, 以憑後考.”(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law/>)

8) 이강욱, 앞의 논문, 130-131쪽.

9) 명경일, 「無啓目單子の 서식과 용례」, 『古文書研究』37(2010), 65쪽.

다]’, ‘敢告[감히 아뢰입니다]’ 가운데 하나를 쓰는 특징이 있다.¹⁰⁾

아래의 예문은 鄭基世 전라감사(1854.2 ~1855.2)가 임지인 여산(礪山)에 도착하여 到界 장계를 올리고 다음날 到任 장계를 올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문서 발신자가 전라감사로 문서식은 계본식이고 종결어는 모두 아뢰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살육사건이나 재난을 당하여 俵災 등을 아뢰 때 중앙 관아에서 보내온 계목식이 감사의 계본 문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삼가 전수(傳受)한 일을 아뢰입니다. 전 관찰사 신 정최조(鄭寢朝)가 받은 검 병마수군절도사 병부(兵符) 우척(右隻) 1척(隻) · 오영장 병부 좌척(左隻) 5척 · 각 진관 수령 병부 좌척 56척 · 각 진포 병부 좌척 25척 등을 이달 8일에 신이 도계(到界)하여 전해 받았습니니다. 이러한 연유를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 함풍(咸豐) 4년(1854, 칠종5) 2월 8일.¹¹⁾

또한 『典律通補』別篇 啓目式 의 細註에서 확인되는 無啓目單子도 있다. 이는 관아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啓文 서식의 일종으로 주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보고나 건의에 사용되는 문서로, 일반적인 啓目식과 같이 종결어로 ‘何如’를 쓰지만 ‘啓’자 같이 국왕에게만 쓰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무계목단자의 수취자가 국왕인 것은 判付를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이다.¹²⁾

조선시대 주요 관아가 국왕에게 아뢰 때 사용한 문서를 ‘啓’라 하고, 계를 국왕에 상달하는 것을 ‘入啓’라고 하고, 입계에 국왕이 처결한 것을 ‘判付’라고 하고, 판부를 관련 기관에 하달하는 것을 ‘啓下’라 하였다.¹³⁾ 그러나 국왕에게 입계된 계사가 모두 판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裁決[허락], 留中[보류], 還給[돌려줌]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의 처분을 받았다.¹⁴⁾

이상의 견해로 『전라감사계록』의 문서식은 문서 발신자가 전라감사이므로 계본식이고 종결어는 아뢰는 내용과 요청하는 내용이 많으며, 계목식은 계본 문서 중간에 내직에서 보내온 문서가 있을 때 인용문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라감사계록』의 성격

전라감영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全羅監司들의 기록물 문서식과 내용을 통하여 감사의 공무와 기록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현전 전라감사 4명의 일기류 <표-2> 가운데 공문서 문서식과 문서내용이 가장 풍부한 서유구 감사의 문서종류 <표-5>¹⁵⁾와 『전라감사계록』의 감사별 문서 세부내용 <표-4>를 비교하여 감사의 공무와 『전라감사계록』의 성격을 가늠하고자 한다. 『완영일록』에는 文書行移가 상행, 평행, 하행 모두 있어 상행문서 한 종류만 있는 『전

10) 김순석,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지역사회연구』22(2014), 149-151쪽 참조.

11) 謹啓爲傳受事。前觀察使臣鄭寢朝所受兼兵馬水軍節度使兵符右隻一、五營將兵符左隻五、各鎮管守令兵符左隻五十六、各鎮浦兵符左隻二十五等，本月初八日，臣到界傳受爲白乎旵。緣由謹具啓聞。咸豐四年二月初八日。(『全羅監司啓錄』5책)

12) 명경일, 앞의 논문, 70-73쪽.

13) 김순석, 앞의 논문, 137쪽.

14) 이강욱, 앞의 논문, 125쪽.

15) 徐有榘 著/김순석 외 역주, 앞의 책, 14-15쪽.

『전라감사계록』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司法 행정을 알 수 있는 각 군현의 報狀에 처결해준 題와 民狀에 대한 題의 문건이 494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동등한 관아로 주고받은 關文이 256건, 예하 관아에 지시형으로 내린 甘結이 83건, 소 역병 처방전인 牛疫方 문건 등 감사의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건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재임 전 기간 공문서만을 선별하여 기록한 특징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15종의 문서종류를 최승희(2008)의 분류법을 따라 세분하면 관찰사로서 작성한 관부문서로 국왕과 왕실에 올린 啓文, 狀啓, 啓本, 啓目, 呈辭, 進上單子, 下直單子, 謝恩單子, 問安單子, 祇受單子, 箋文과 56개 고을 수령, 각 군영·진영장 등에게 주고받은 關文, 牒呈, 帖, 褒貶同議單子, 甘結, 解由, 朝報, 傳令과 私人에게 내려 준 題音, 帖文, 告示 등의 다양한 감영 공문서를 엮을 수 있다. 반면 『전라감사계록』의 감사별 문서 세부내용 <표-4>는 감사로서 국왕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農形, 雨澤, 褒貶, 賑恤, 祭禮, 薦新, 奉審, 納稅, 還穀, 試取, 箋文, 異國船, 赴任, 反庫, 旌閭, 殺獄, 定配, 習操, 王命祇受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고, 의금부나 비변사에서 감영으로 보낸 국왕의 지시사항이 있는 관문을 감사가 관할 수령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첩정으로 보고받아 국왕과 왕실에 보고하는 내용을 모은 책이다. 문서식은 종2품의 아문이 국왕에게 보고하는 계본식 중심으로 작성된 상행 문서이다. 그러므로 『전라감사계록』의 문서는 『완영일록』에는 있는 상급기관으로서 휘하 수령에게 보낸 甘結 문서나 私人에게 처결해준 題音 같은 하행문서가 없다.

<표-5> 『완영일록』 문서행이별 문서종류 및 등재 문건 수

문서 종류	1833년(순조33) 4월 10일-1834년 12월 30일 까지 세부문서 제목	등재 문건 수	문서 행이(行移)별 분류
上疏		1	上行 문서 169건
狀啓	狀啓·雨澤狀啓·褒貶都封啓·刀擦啓	128	
箋文	箋文·內閣箋文	6	
報牒	報牒·牒報·牒呈	27	
跋辭		3	
褒貶榜目		4	
題	題(報狀·例題·檢案·查案). 단, 考試의 策題·表題·賦題·論題·巡行時 民狀題(1,356건) 등은 제외	494	平等 · 下行 문서 803건
關文		256	
私通		24	
移文	移文·文移·回移	29	
諭書		1	
甘結		83	
牛疫方		1	下行 문서 99건
下帖	下帖·帖文	4	
傳令		10	
계 / 15종		1,071	

따라서 『전라감사계록』을 발급주체 기준의 문서식과 아뢰는 내용으로 성격을 규정한다면, 관부문서¹⁶⁾로 외직의 직계아문인 전라감사가 국왕과 왕실에 아뢰었던 내용을 啓本式으로 작성한 非兒房啓辭를 기록한 啓文이다. 이 문서의 내용은 이전에 승지를 통하여 계목식으로 작성한 국왕과 왕실에 아뢰거나, 요청하거나 물었던 내용에 대한 국왕의 관부를 중앙관부에서 관문으로 보내온 것을 받아보고 필요에 따라 관문 지시 내용의 처리결과를 감사가 국왕에게 아뢰는 것과, 외직 감사로서 일상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農形 등의 직무를 1829년(순조29) 8월부터 1889년(고종26) 5월까지 60년 기간에 8명의 전라감사가 아뢰는 내용[啓聞]을 모은 7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전주는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도읍이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를 관할하는 감영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역사문화적으로 언제나 전라도의 대표 도시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중심 도시에서 밀려난 이후 최근 전주한옥마을을 내세워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하려고 노력 중이다.

전주한옥마을에는 전라감사가 매일 순행했을 풍남문, 전라감영, 객사, 경기전, 조경묘, 조선 태조어진(국보 제317호), 전주사고, 오목대, 전주동헌, 전주향교, 이목대 등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성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와 유적 문화공간은 조선 8도에 감영이 있었던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없어 전주의 품미와 어울려 전주만의 고유성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러한 전주한옥마을의 위상을 역사적으로 복원해내기 위해서는 전라감영문화를 철저히 연구하여 조선시대 518년 동안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위상을 이제 적어도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역사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동학 대집강소를 설치했던 사실부터 다양한 감영사료와 감영문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8명의 전라감사가 60년의 시차를 두고 국왕에게 아뢰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글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가 일상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을 조금 알 수 있었고 국왕에게 아뢰는 때 문서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농형과 재난 처리과정, 살육사건 처리 과정 등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감사계록』 같은 전라감영 사료는 국왕에게 보고된 내용이므로 정확하고 생생하

16) 최승희는 한국고문서를 발급자를 기준으로 수취자에 따라 세분하여 국내문서와 외교문서로 구분하고 국내문서는 다시 발급자기준으로 수취자를 國王, 王室, 官府, 私人, 寺社, 書院, 道觀, 結社, 封神佛 문서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관부문서의 對國王 수취자 구분은 冊寶, 箋文, 上疏, 劄子, 啓(文), 草記, 啓本, 啓目, 狀啓, 書啓, 呈辭, 薦單子, 進上單子, 下直單子, 謝恩單子, 六行單子, 問安單子, 祇受單子, 處女單子 등 19가지이고, 對王室 수취자 구분은 上書, 申本, 申目, 狀達, 玉冊, 箋文 등 6가지로 나누었다. 崔承熙,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知識産業社, 2008), 48-49쪽.

계 전라도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영 문화를 중심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역사문화 관광지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 전주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도 다양한 전라감영 사료를 다각도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조선후기 각 고을의 강우량 보고의 세밀함과 빈번함을 보고 차기 연구 과제로 조선시대 전라지역 각 고을의 강우량 추이변화를 도표화 하여 현재 강우량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짐하며 맺는다.

<참고 문헌>

□ 사료

『經國大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대 법령자료)

『全羅監司啓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각사등록, 전라도편)

柳希春, 『眉巖集』 (한국고전DB)

李相璜, 『湖南日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李錫杓, 『湖南日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열람실)

□ 단행본

金景善·洪羲錫·南秉哲 著/김순석 외 역주, 『전라감사계록2』 (흐름출판사, 2020)

徐有渠 著/김순석 외 역주, 『완영일록1~4』 (흐름출판사, 2018)

趙寅永 著/김순석 외 역주, 『전라감사계록1』 (흐름출판사, 2019)

崔承熙,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2008)

□ 논문

김순석,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지역사회연구』 22(지역사회학회, 2014)

명경일, 「無啓目單子の 서식과 용례」, 『古文書研究』 37(한국고문서학회, 2010)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7(한국고문서학회, 2010)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2)(역사문화학회, 2020)

전라감사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 연구

김진돈 / 전라금석문연구회장

전라감사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 연구

- 현존하는 전북 도내 전라감사 금석문을 중심으로 -

김진돈

〈목 차〉

- I. 머리말
 - II. 전라감사 신도비 및 사적비
 - III. 전라감사 선정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전라감사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비를 찾아 조사하였다. 바위를 살피고 옛 현터를 찾아 선정비를 찾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옛 길목을 다녔다. 일반적으로 선정비는 의례적인 빗돌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전면에 공적 내용이 적혀 있고, 어떤 비석들은 음기에 빼곡하게 사건들을 나열한 비석들도 있다.

그러나 선정비에는 공적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적어서 감사와 관련된 금석들을 찾아 몇 가지를 조사하게 되었다. 즉 감사의 선정과 업무에 관심에 대한 갖게 되었고 감사와 관련된 금석문을 조사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는 전북에서는 선정비가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전라감사와 관련된 인물 중에서 신도비 및 사적비 그리고 기타 비석 등을 통하여 조선 초기의 전라감사의 흔적을 찾고자 하였다. 금석문을 통하여 전라감사의 행적을 좇는 작업이 처음이라 아직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감사들의 행적을 찾아가는 기초 사료가 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라감사의 행적이 있는 신도비 및 사적비를 살펴 보고, 또한 현존하는 전라감사 선정비의 전북 지역 데이터를 개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전라감사 신도비 및 사적비

전라감사 선정비는 조선 초기 것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주지역은 임란 이후 약 1680년경부터 비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초기의 관찰사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전라도 출신은 상피제로 인하여 전라감사로 임용되기가 쉽지 않았다. 즉전라감사는 되도록이면 전주인들에게 맞지 않아서 숫자가 많지를 않다.

그렇지만 전라감사를 한 사람들은 간혹 나타나고 있다. 조선 초기 가장 먼저 감사를 역임한 인물은 아마도 양후공 이백유일 것이다. 전주이씨 시중공과 족보를 보면 태조 이성계가 운봉 황산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오목대 잔치를 할 때 주선한 인물이 바로 전주이씨 종친 이백유, 이승길, 이자을 등이다. 특히 이백유는 태조 이성계를 도운 공로가 있어 개국공신에 녹훈되었고, 태조4년(1395)에 전라도감사를 역임한 후 한성부윤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태종 17년(1417)에 전라도감사를 역임한 성달생은 고산 화암사에서 많은 불경을 발행하는데 참여한다. 그래서 그의 업적에 대하여 고산 화암사 중창비가 있어 조사하고자 한다. 즉 조선 초기의 전라감사는 선정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료나 금석문을 통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1. 이백유 신도비

이백유는 전주이씨 시중공과 이문정의 손자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마전마을을 기반으로 살아 온 전주이씨 토박이 집안이다. 지금도 마전마을에는 황강서원을 기점으로 이백유의 부조묘(不祧廟)인 양후재(良厚齋)가 있다. 전주에서 부조묘는 오로지 이백유 한 사람만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백유는 태조 이성계의 잡저시 오목대 잔치를 주선한 인물로 전주이씨 종친들을 모 집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또한 이밖에 전주이씨 중에서 잔치를 주선한 인물로는 이승길, 이백유, 이자을 등이다. 전주 상관면 월암 마을에 있는 「이승길 묘비」를 보면 오목대 잔치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태조대왕(太祖大王)이 남쪽 왜구를 정벌하고 돌아오다가 전주 오목대(梧木臺)에 머물면서 종당부로(宗黨父老)들을 불러 보시고 말씀하되 “천 가지 나무도 뿌리는 하나요, 만 갈래 물도 근원은 한가지라. 오늘은 동성동본이 모인 자리니 마시고 즐기리다.” 대왕이 주흥에 의하여 노래하니 공(이승길)이 또한 군악(軍樂)으로 화답하였다. 대왕이 왕위에 오르자 공에게 출사(出仕)하라고 특명을 내리셨다. 후에 여러 번 전임(轉任)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고 품계(品階)는 보국(輔國)이었다. 만년에 벼슬과 명망이 높은 것을 두렵게 여겨 시골집으로 돌아와 수명을 마치니 이것이 공이 행한 일의 대강이다.¹⁾

전주이씨족보(이조판서공파)를 보면 1380년 태조 이성계가 남쪽을 정벌하고 돌아갈 때 오목대에서 대풍가를 불렀을 때 이백유는 백의(白衣)로 잔치를 주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 개국한 후 태조는 종친을 모아놓고 향연을 베풀 때 “천지일근(千枝一根), 만류동원(萬流同

1)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7), 「이조판서이승길묘갈명」,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 (전주,완주)』, 신아출판사, “太祖大王征南還御梧木臺召見宗黨父老公入侍 上教曰千枝一根萬流同源今日即花樹之筵也飲而樂之 上倚酒以歌公亦以軍樂和焉及 上御極特命公仕後累遷至吏曹判書階輔國晚以榮顯懼退鄉廬以壽終此公大槩也.”



이백유신도비(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황강서원 서쪽)

源)”이라 말했다고 한다. 또한 “태조가 즐겁게 남풍시(南風詩)²⁾를 읊으니 백유(伯由)는 격양가(擊壤歌)³⁾를 부르고, 종친 자을(資乙)은 강구요(康衢謠)⁴⁾로 화답하고, 백의종인 승길(白衣宗人 承吉)은 태평소(太平簫)⁵⁾를 불렀다.”고 한다. 이날 백의로 관직을 받은 사람이 17명으로 이승길은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자을은 사간(司諫), 이백유는 개국공신(開國功臣) 완성부원군에 각각 녹훈되었다.

오목대 잔치를 주선한 인물 등 중에서 관직이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백유이라 할 수 있다. 이백유는 관향이 전주이며, 검교중추부사 이몽(李蒙)의 장남으로 1352년(공민왕1)에 전주에서 태어났다. 고려 말 이미 1371년 문과에 급제한 후 청주사록(�淸州司錄) 전교교감 예문관 검열 수찬 공양을 거쳐 감찰 규정을 재임하고 있다가 늙은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그 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돌아와 전원생활을 하였다.

이백유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잠저 때부터 잘 알고 지냈으며, 1392년(공양왕4) 7월에 몇몇 동지와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조를 개국한 공로로 성균관 대사성을 배명하고, 병조판서를 거쳐 전라도 관찰사, 한성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1396년(태조5)에는 순충익대개국공신(純忠翊載開國功臣)이 되었고 자헌대부 예조판서 완성부원군에 봉작되었다. 1399년 전주에서 서거하니 향년 48세였다. 조정에서는 3일 동안 철조하고 예장으로 예우하였으며 양후(良厚)라는 시호를 내렸고 전주 마전 황강서원에 배향되었다.

이백유는 전라도 출신으로 전라도 감사에 임용된 최초의 인물이다. 조선왕조 5백 년간 전라도 출신 전라감사는 12명에 불과하다. 그가 전라감사로 부임한 것은 44살 때인 태조 4년(1395)

2) 남풍시(南風詩)는 우순(虞舜)이 지었으며 “남풍의 훈훈함이여 우리 백성의 노염을 풀리도다(南風之薰兮 解吾民之慍兮)”라는 내용이다.
 3) 격양가(擊壤歌)는 어느날 요임금이 평복으로 시찰을 하는데, 어떤 노인이 먹을 것을 입에다 물고 배를 두드리며 땅을 치면서 노래하기를 “해가 뜨면 들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 쉬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농사지어 내 먹는 데,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고 하였다.
 4) 강구요(康衢謠)는 『열자』 「중니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린지 50년이 되어 민심을 살피고자 나온 길거리에서 마을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래이다. 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모든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천자님의 선한 정치 때문이네, 모든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세 천자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되네”라고 하였다. “누가 이 노래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아이들이 대답했다. “대부에게서 들었습니다.” 대부에게 묻자 대부가 대답했다. “옛 시(노래)입니다.” 후에 이로 인해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노래를 강구요(康衢謠)라고 하게 되었다. (堯治天下五十年, 不知天下治歟, 不治歟. 不知億兆之願戴已歟, 不願戴已歟. …… 堯乃微服遊於康衢, 聞兒童謠曰, 立我蒸民, 莫匪爾極, 不識不知, 順帝之則. 堯喜問曰, 誰教爾爲此言. 童兒曰, 我聞之大夫. 問大夫, 大夫曰, 古詩也. 後因稱歌頌盛世之歌爲康衢謠.)
 5) 태평소는 한국 전통악기중의 하나로 풍물굿에서 화려하고 강렬하면서도 애처로운 소리는 내는 악기이다. 지금 전주 기 접놀이에서도 사용하는 악기이다.

2월 26일이다. 『호남도선생안』에 을해년 2월 26일 하계(下界)로 기록되어 있다. 하계는 전라도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전라감사 이임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30일 한성윤으로 상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6개월간 전라감사로 재임하다가 한성윤이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⁶⁾

그의 즐기⁷⁾를 보면, 완성군 이백유의 시호를 ‘양후(良厚)’라고 하였다. 그의 묘소 앞에는 구비와 새로운 신도비가 2개 있으며 구비는 마모되어 글자를 판독할 수 없다. 단지 구신도비는 개석을 갖추고 있으나 건립 시기는 미상이나 비문을 지은 ‘이신晦(李身晦)’ 이름이 판독된다. 이신晦는 1799년에 사망하였으니 그의 생존 시기인 1700년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이영신이 해서로 썼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글씨의 박락이 심하여 해독이 어려운 상태여서 새로운 신도비를 봐야 참고할 수 있다.

태조가 잠저에 계실 때 가장 지우(知友)를 입었는데, 고려의 국운이 이미 다 하기에 미쳐서 공이 천명과 인심이 돌아가는 바를 적실히 알고, 이에 2·3훈신과 더불어 태조를 추대하여 임신(1392)년에 태조가 왕위에 나가니, 공에게 개국공신의 호를 주고 교서를 내리어 이르기를 덕이 성대하면 관직을 주고 공이 성대하면 상을 주는 것은, 왕자가 중히 여기어 국가에서 규칙을 만든 것이다. 창업 초기를 당하여 개국의 업적을 도와 이루었으니 마땅히 크게 포상하여 장래를 권장할 것이다. 경이 왕자지재(王者之才)와 순유지행(醇儒之行)으로 천인의 학문을 강구하고 염락(濂洛)의 말씀을 침잠(沈潛)하여 과거 보는 장소에서 이름을 날리어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옥서(玉署)에서 붓을 잡아 배운 바를 전포하였다. 위조의 정치가 어지러워지던 날 전원으로 물러가 쉬었고 무진년 현인을 거용(擧用)할 때를 당하여 탁발되어 형부로 나가 기강을 세우고 국체(國體)를 정하였으며 법장(法章)을 밝히고 인심을 승복시키었으며 간원의 의표(儀表)가 되어 정직한 왕신의 절개가 나타났고 백리 지방에 관리로 나가 온화한 순이(醇吏)의 풍도가 있었도다. 전조(前朝) 말엽에 군덕(君德)이 혼미해져서 상별이 참람하고 기강이 쇠체하여 졌다. 경이 천명이 돌아가는 것과 인심이 향하는 바를 알고 과인의 몸에 뜻을 두어 하여금 대업을 이르게 하였으니 당나라의 두여회(杜如晦) 방현령(房玄齡)과 송나라의 범중엄(范仲淹) 부필이라도 여기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이럼으로써 그 아버지의 품작을 올려주고 유대(宥貸)를 자손에게 미치게 하였으며 인각(麟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석을 세워 업적을 기록할 것이며 전토를 주고 겸하여 노비를 주노니 가히 공경히 받을지니라. 아! 천명을 새로 입은 것은 실은 고굉(股肱) 같은 어진 보필을 말미암은 것이니 길이 나의 마음을 두어 산하의 맹서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갑술년에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었고 을해년에 병조전서로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9월에 한성부윤에 제수되었다. 병자년에 차헌대부 예조판서 완성부원군에 제수되었다. 건문 원년 기묘 7월 十三일에 전주 집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四十八세이다.⁸⁾

6) 전북일보(2020. 12. 14), 「전라감사 100인 열전, 전주출신 전라감사 이백유」

7) 『정종실록』,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완산군(完山君) 이백유가 졸하였다. 이백유는 전주(全州) 사람인데, 과거에 올라 국초(國初)를 당하여 훈맹(勳盟)에 참여하였다. 시호(諡號)는 양후(良厚)라 하였다. 아들은 이숙(李奭)·이자(李袞)·이균(李翻)이다.”

8)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7), 「이백유신도비」,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 (전주, 완주)』, 신아출판사, 165쪽, “太祖在潛邸時最荷知遇及麗運既訖公的知天命人心之所歸乃與二三勳臣推戴太祖壬申太祖即位賜開國功臣號其教書若曰德懋懋官功懋懋常此王者之所重國家之成規肆當創業之初弼成開國之績宜大褒常用勸將來卿以王佐之才醇儒之行講究天人學沈潛濂洛之言揚名場屋以顯其親秉筆玉署以展所學方僞朝政亂之日退休田園在戊辰舉賢之時進擢刑部立紀綱而定國體明法章而服人心儀表諫院謇謇王巨之節出宰百里溫溫醇吏之風前朝之末君德昏迷賞罰濫紀綱衰替卿知天命之所歸人心之攸向注意寡躬俾成大業李唐之杜房趙宋之范富無以過焉是用陞其父爵有及子孫立閣圖形鐫碑紀績賜之田土兼以奴婢至可領也嗚呼新服厥命實有股肱之良永肩乃心無負山河之誓甲戌拜成均館大司成乙亥拜兵曹典書全羅道觀察使九月拜漢城府尹丙子拜資憲大夫禮曹判書完成府院君建文元年己卯七月十三日卒于全州第享年四十八訃聞輟朝三日轉贈甚厚命攸司葬之以禮贈諡良厚墓在全州伊東面馬田里。”

전라감사 이백유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태조와의 연관성, 그리고 시호를 받은 내용이 있으며, 전주 마전에 그의 부조묘가 있으므로 향후 이백유에 대한 연구가 천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성달생이 기록된 화암사 중창비

「화암사중창비」는 완주군 경천면 용북리에 위치한 불명산 화암사에 있다. 이곳에는 전라감사를 역임한 성달생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있다. 1417년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절제사로 부임한 성달생은 사찰을 하나 세우고자 물색하던 중 산 좋고 물 맑은 화암사가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암사 주지였던 해충을 불러 뜻을 밝히자 해충스님도 그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비교적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철계단도 설치되어 크게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지만, 처음 절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위치였다. 깎아지른 절벽과 폭포는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지 않는 지형이다. 그러나 막상 절터에 올라가면 포근하고 아늑한 산세가 펼쳐지니 옛사람이 ‘말 1만 마리도 능히 숨길 수 있다’고 기록한 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닌 명당터이다.

「화암사중창비」는 바로 이 화암사 우화루에서 경내로 들어가기 전 좌측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방형대석(方形臺石)에 개석이 없는 월석(月石)으로 1572년(선조 5)에 건립되었고, 또 비각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 풍마우세(風磨雨洗)로 판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문은 앞뒷면 894자를 해서로 썼으나 지은 사람과 글씨 쓴 사람은 기록이 없다. 옛 문헌을 참고하여 보면 신라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 절에 머물면서 수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문무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나 비문 내용은 1441년(세종 23)에 쓰여 졌고, 건립 시기는 1572년으로 되어 있다.

을사(乙巳:1425년)년에 지금 우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성군(成君) 휘(諱) 달생(達生)이 원찰(願刹)을 세워 부처님을 받드는 도량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 땅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절이 산천의 청정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조사(祖師)들이 불법(佛法)을 연마하기 위한 도량으로 삼았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절의 승려를 불러 말하기를“내가 비록 그 절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곳이 복된 땅이라고 들은 지는 오래되었다. 내가 거듭 새로이 하여 부처님이 계신 절을 넓히고자 하니 누가 이 일을 맡아보겠는가. 내가 단월(檀越)을 하겠노라. …… 을유(乙酉)년에 성상국이 입조(入朝)한 딸의 도액(度厄)을 위하여 직접 이 절에 왔다. 이에 그는 산천의 뛰어난 절이 창건된 연유를 살펴보았다. 무릇 목판에 기록된 화주(化主) 달생이란 이름이 우연케도 자신의 이름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의 생사(生死)·왕래(往來)·인과(因果)·쟁화(爭化)의 설을 떠올리며 말하기를, “내가 현재 장상(將相)의 지위로 부귀를 누리고 있음은 전세(前世)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 하며 더 많이 재물을 보시(報施)하였다. 또 한 금은을 시주하여 개금불사(改金佛事)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工人을 재촉하여 맹통(羹桶)과 방룽(房櫳)을 간결하게 돌보이고 재주(齋廚)는 엄하나 새가 지저귀고 말이 웃는 듯하며 허공에 누르고 푸른빛이 주위를 에워쌌다. 또 바위 절벽이 험난하기 때문에 보시하러 온 소나 말이 올라오지 못하고 노숙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에 민가에서 마구간 1채를 운영하게 하고 사람과 말의 처소를 달리하여 머물게 하였으며, 승려로 하여금 기거(寄居)케 하여 이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산문(山門)의 일을 마칠 수 있게 하였다. 을사(乙巳:1425년)년에 시작하여 경신(庚申:1440)년 여름에 마쳤다.9)



화암사중창비(전북도 유형문화재)

이 기록을 통해 완주 화암사는 전라감사를 역임한 성달생의 지원으로 화암사가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라감사 성달생은 화암사에서 많은 불교 경전의 목판본 발간을 주도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에 대하여 송일기 교수는 “① 능엄경(楞嚴經) 계해(1443) 성달생 발(跋), ②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정통 8년 계해(1443) 성달생 발, ③ 육경합부(六經合部) 순천임오(1462) 성달생 발, ④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성화13년 정유(1477) 성달생 발 등의 목판이 발행되었다.” 고 하였다. 또한 이태영 교수는 “성달생이 1417년(태종17) 도관찰출척사겸병마도절제사, 1425년(세종 7년) 화암사 중창불사에 대시주, 1429년(세종 10) 성달생이 직접 화암사를 방문하여, 1432년(세종 14) 화암사판 『능엄경(楞嚴經)』 정서를 마쳤다고 하였다.¹⁰⁾ 이렇게 성달생에 의하여 판각된 경판 200여 장이 극락전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현재는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옮겨 보관 중이다. 화암사판 「묘법연화경」은 성달생, 임효인, 조절 등이 글씨를 써서 화암사에서 판각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성달생과 관련된 화암사 중창비의 판독과 그리고 화암사에서 발행한 목판본도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성달생 사후에서 화암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달생의 발문을 붙여 불경을 발행하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1453)』, 『육경합부(六經合部,1462)』,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1477)』,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1484)』,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1488)』, 『육경합부(六經合部,1488)』, 『금강경계청,1488)』,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1493)』, 『불설예수십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1618)』 등이 그것이다. 성달생의 아버지는 1398년 전라감사를 역임한 성석용(成石瑢)이다. 성석용은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완산부의 전 군수 박진(朴晉)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조정에 알린으로써 정려비를 내리게 하였다. 박진의 효행은 『삼강행실도』에도 그 기적이 실려 있다.¹¹⁾ 또한 성달생의 손자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이다.

화암사에는 전라감사 성달생의 공적을 기리고자 극락전 동쪽 건물에 철영재(啜英齋)을 지어 성달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철영재 편액은 추사와 교유(交遊)한 자하(紫霞) 신위(申緯)의 글씨이다. 단아한 붓질과 세련된 필획에서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꼭 화암사에 가면 성달생의 중창과 목판 간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9)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7), 「화암사중창비」,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 (전주,완주)』, 신아출판사, 245쪽.

10) 이태영(2021), 『완판본 인쇄·출판의 문화사적 연구』, 역락, 328~329쪽.

11) 전라북도·전북향토문화연구회(2006), 『전라감사(상권)』, 신아출판사.

3. 남고진사적비에 나타난 전라감사들

「남고진사적비」는 전주의 남쪽 고덕산 자락 남고사 입구 수문 옆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최영일이 지었으며 전면의 글씨는 전라도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창암 이삼만(1770~1847)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썼다. 따라서 이 비는 창암의 말년 글씨로 해서에 행기(行氣)를 가미한 그의 대표적인 금석문으로 평가된다. 비록 행서를 가미한 해서체이긴 하지만 강골한 필획과 여유 있는 포치는 우리나라 동국진체의 끝자락을 장식한 대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비록 비의 크기는 132cm에 불과한 단갈이지만 비교적 개석의 크기가 크고 조각 솜씨가 투박한 편이어서 중후하며 당당해 보인다. 두전(頭篆)의 위치에 창암 특유의 해서 대자로 「남고진사적비(南固鎭事蹟碑)」라 제(題)하였으며 당초에는 전면만 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전라감사로 재임하면서 남고산성을 축조하기 위하여 노력한 조현명·이상황·박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영조 갑인년(1734년)에 관찰사 조현명(趙顯命 : 1690-1752)이 전주에 와 다스릴 때에 부성을 증축하는 일을 마친 끝에 남고산에 성을 쌓고자 하였으나 임기가 만료되어 미수에 그쳐 안타까움만 남게 되었다. 순조 신미년(1811년)에 관찰사 이상황(李相璜 : 1763-1841)이 우리 지방을 안찰(按察)함에 이에 고을 안의 선비들 및 삼영(三營) 장관 그리고 관내의 원로들과 상의 끝에 다음 해 임신년(1812년)에 금풍군 박윤수가 그대로 이어서 공사를 잘 마쳐 변성(邊城)을 굳게 하였다. 그러하니 금성탕지(金城湯池)를 만드는 일도 비록 천험에 모여진 기를 모아 이루는 것이지만 문득 또한 때를 기다려야 이뤄지는 것인가 싶다. 이 때에 삼영 장관이 성의를 다하여 재물을 모아 복성을 수축하고자 하기로, 이번 일의 기사를 헤아려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돌을 세워 다하지 못한 조현명에서부터 이상황·박윤수에 이르기까지의 전말을 새겨 둔다. 승정기원후사(1846년) 병오 전주의 선비 최영일 찬 이삼만 서¹²⁾



남고진사적비(전주시 향토문화재)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남고산성은 1734년 관찰사 조현명이 시작하여 이상황과 박윤수가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1849년에 이 비를 세웠다. 조현명은 1734년(정조 10)에 전주성이 낡아서 수축하려고 하였으나 전주성 축성에 대한 공사를 정지시킬 것을 청한 대간(大諫)의 계청(啓請)과 관련하여 상소를 올린다. 축조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면서 재용(財用)의 비용과 정부(丁夫)

12)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7), 「남고진사적비」,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 (전주, 완주)』, 신아출판사, 75쪽, “英廟甲寅趙相公顯命來守是邦增築府城功訖復圖城於此當瓜遞而未遂焉逮夫純廟辛未李相公相璜按節察邇乃收州內章甫及三營將官府老之諸議劃策經始事幾過半翌年壬申錦豐君朴公崙壽遵之而告功克完固圉噫金湯之設雖關氣數之會抑亦待時而成也當時三營將官殫竭鳩財以障北城擬其紀事備茲貞石迄未亟成于此三紀矣今因僉議攸同切欲繼往而壽後爰紀爰刻不朽其傳云爾。”

의 수효와 역사를 마칠 기일을 조목별로 열거하였다. 또 말하기를 “큰 역사는 한번 정지 키시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축되어 있는 재물은 점점 소모되어 가는데, 이렇게 1년, 2년 미루다가는 결국에는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신(臺臣)들이 풍년을 기다린다는 말은 거의 황하(黃河)가 맑기를 기다리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사변(事變)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니 말일 불행한 기회가 있어 남문(南門)을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된다면 대신들이 반드시 춘추를 읽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때는 또한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비답하기를 “이미 시작한 공사를 어떻게 중도에 그만 둘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문 ‘명견루’가 완성된 것이다. 그런 다음 조현명은 「명견루기」에서 이 성문은 고려말 도관찰사 최유경이 축성했다며 역사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남고진사적비」에는 전라감사들이 전주를 방어하기 위하여 남고산성을 축조하고 만마관을 다듬어가는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4. 남관진창건비



남관진창건비(완주군 향토문화재)

「남관진창건비」는 원래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남관 철로 변에 세워져 있었으나 전주-남원간 도로 확장으로 쓰러진 채 방치되어 오다가 현 위치에 옮겨 세웠다. 방형대석에 옥개형 개석을 갖추어 1873년(고종 10)에 건립하였다. 그러나 그간 관리가 소홀하여 건립연대에 비하면 박락이 심한 편이어서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비문을 지은 사람과 글씨를 쓴 사람은 기록되지 않고 별감동 부사과 서찬보, 감동 도감관 전첨사 백락서 등 실무자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옛 『완산지』의 기록에 의하면 1811년(순조 11) 전라관찰사 이상황이 부의 동남 7리에 만마관(萬馬關)을 축성하였고, 1813년(순조 13) 관찰사 박윤수가 견훤고성지에 산성을 축성하고 진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비문에는 남관에도 성을 쌓았으나 그 규모가 아직 갖추지기도 전에 중단되었으나, 이호준이 본도 관찰사에 부임한 지 4년 만에 그간의 사유를 갖춰 상주하고 대원군에게 품의하여 1873년에 남관성을 수축하니 남고성과는 성문루(城門樓)의 거리가 10리쯤 되는 거리로 남북으로 마주하였다. 진당(陳堂)의 관아를 설치하고 여러 창고를 세웠으며 장대(將臺)는 남쪽에 두고 화포청은 서쪽에 두어 모두 100여 칸의 건물이 세워졌다. 대략 그 진지로서

형세가 뛰어나서 험준하기가 하늘이 지어 놓은 듯 하였으며, 중국 촉도진관과 전주어도 가히 백중이라 할 만하였으니, 이는 낙재 이호준의 공적이 크니 오래도록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일로서 이 비를 세웠다는 것이다.

동어 이상황(전라감사)과 반남 박윤수(錦豐君, 전라감사)가 본도의 관찰사로 있으면서 남고산에 성을 쌓아 진을 설치하고 장수를 두어 지키게 하는 한편, 남관에도 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 규모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중단되었다. 재원 마련의 겨를도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식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근심하고 개탄한 지 61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 낙재(樂齋) 이공(李公)이 본도를 안무한 지 4년에 그간의 사유를 갖추어 상주하고 대원위(大院位)에게 품의하여 마침내 계유 4월에 먼저 남관성을 수축하였다. 남고성과는 성문루의 거리가 십 리쯤 되는 곳으로 냇물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하였다. 진장(鎭將)의 관아를 설치하고 여러 창고도 세웠으며 將臺는 남쪽에 있고 화포청(火砲廳)은 서쪽에 두었으며 모두 백여 칸이나 되었다. 대략 그 진지로서의 형세가 뛰어나서 험준하기가 마치 하늘이 지어놓은 듯 하였으며, 중국의 촉도진관(蜀道秦關)과 전주어도 가히 백중이라 할 만하였다. 수성을 시작하면서부터 대야 이공은 심중계획을 묵묵히 운행하면서 7개월간을 조금도 번거롭거나 흠여짐이 없이 검열하였고, 모든 일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갔다. 드디어 천 년 풍족한 고을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일대 관문의 방어성을 완성하였으니 아! 훌륭한 일이다. 하물며 대야 이호준이가 관찰사로 온 이후 모든 일을 거행하는데 정치는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화평하였다. 평중 구준(寇準 宋代人)의 이량과 정국공 부필(鄭國公 富弼)의 덕망으로 상주 사민에게 오랫동안 제사를 받았고, 바로 오늘날 이곳을 지나는 영호남 사민이 다같이 탄식하기를 “이 낙재 이호준의 공덕을 오래도록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일로서 어찌 다만 백 년 시축으로 끝내고 말 일인 가”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돌에 새겨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승정기원후오계유 구월 일 별감동부 사과 서찬보 감동도감관 전첨사 백낙서 절충 최봉언 간역 가선 김재영 번와 부석 별목 색리 김노홍 정복인 장인행 내책응 백낙필 외책응 유덕운¹³⁾

이처럼 「남관진창건비」에서는 남고산성을 쌓았던 감사들의 이름과 더 나아가 이호준 감사가 1870년부터 근무하면서 행정에 진력하고 외침에 대비하여 성(만마관과 남관성)의 보수와 군사훈련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 할 것이다.

5. 이완용공적비

부안군 줄포면사무소 창고에는 이완용 관찰사의 공적비가 좌대가 유실된 상태에서 사무실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실 이 비석은 1898년 이완용이 전라감사 시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금석이다. 그 당시 줄포면 앞바다가 갑작스런 해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때 이완용 관찰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제방을 중수토록 지시하자 주민들이 작은 돌에 공적 내용을 적었다. 이 공적비는 광복 이후 매국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로 차고 비석을 긁어 대기 시작하였다. 이에 1973년 당시 줄포면장 김병기는

13)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7), 「남관진창건비」,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 (전주, 완주)』, 신아출판사, 266쪽, “桐漁李公潘南朴公相繼爲本道觀察使築城於南固山而置鎭將守之又築城於南關而規模未備且財絀未遑至今六十有一年有識之憂歎厥由久矣樂齋大爺李公按本道之四年具由上聞又稟議于大院位乃於癸酉四月先修南關城譙距南固十里之地相陰陽觀流泉設鎭將之衙建儲胥之庫將臺在其南火砲廳在其西凡百有餘間矣蓋其形便之勝殆若天設險阻而蜀道秦關可與爲伯仲者也自營造之初大爺默運心筭不煩不撓闕七朔而百務就緒遂使千年豐沛之鄉奄成一大關防嗚呼盛矣況大爺按節以後百度修學政成人和寇準之雅量富弼公之德望爲細州士民百年尸祝則今日嶺湖士民之過此者相與之歎息曰此樂齋李公之功其所不諼之思豈但爲百年尸祝而已哉遂記之于石以示後人 崇禎紀元後五癸酉九月日 別監董副司果徐贊輔監董都監官前僉使白樂瑞折衝崔鳳彥看役嘉善金在永燔瓦浮石伐木色吏金魚洪鄭鳳翊張仁行內策應白樂弼外策應柳德雲.”

3,000원에 이 비석을 구입하여 줄포면 건물 뒤편에 세웠으나, 또 사람들이 문제를 삼자 이 비석을 뽑아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이 비석은 매국노 이완용 비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부안군수였던 유진철(俞鎭哲)과 함께 쓰인 비석이다. 비석이 수난을 당하여 없어질 경우도 있어 그 내용을 옮겨 본다.

觀察使李公完用郡守俞侯鎭哲 恤民善政碑(전면)
 海若不靖 바다가 고요하지 않으면
 民庶其魚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치니
 我公巡審 우리 공(公)께서 순찰하며 살피는데
 一溪一驪 종 한명과 말 한 마리뿐이고
 我侯董築 우리 군수께서 방조제 건축을 감독하니
 民奠舊閭 백성들은 옛 마을에 그대로 살게 됐네.
 軫厥凍餒 얼어 죽고 굶주림을 불쌍히 여겨
 廩惠俱損 창고 열고 은혜 베풀어 모두를 구제하니
 澤流一坊 온 고을에 은혜(恩澤) 흘러
 泳焉涵焉 마음 놓고 살게 됐네.
 勒石銘口 그 공적 돌에 새기고 입으로 전해지니
 蘇陳同專 소동파(蘇東坡), 진사도(陳師道) 옛 일과 똑같네.
 己亥 正月 日 기해(1899년) 정월 일



전라감사 이완용 공적비(줄포면사무소)

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안의 줄포면에는 오래전 ‘원둑(언뚝)’ 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는데, 이곳은 1898년 이완용이 줄포 바닷가 땅이 해일로 침수했을 때 현지를 시찰하면서 바닷물을 막을 수 있는 둑을 쌓도록 군수(유진철)한테 지시하여 생겨난 이름에서 유래했다. 당시 둑을 쌓고 난민을 구제한 이완용의 공덕을 기념한 ‘이완용 홀민선정비’가 현재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¹⁴⁾ 매국노 선정비의 말로(末路)가 어떤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Ⅲ. 전북 도내 전라감사 선정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도까지 호령하던 전라감영이 2020년 옛 터에 새롭게 복원되었다. 전라감영은 웅장한 내삼문을 통해 들어가면 전라감사가 업무를 보던 선화당과 관풍각, 연신당 등이 복원되었다. 그리고 관풍각 동쪽에 영의정, 암행어사, 판관, 관찰사들의 선정비를 다가공원에서 옮겨 왔다.

선정비는 일반적으로 직함과 이름 그리고 선정 내용이 기록된다. 그러나 어떤 것은 선정 내용이 없어 행적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보니 전라감사의 선

14) 전북일보(2021, 8. 8), 「이완용 둑과 불이 간척지」.

정비가 여러 곳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주를 시작으로 부사들이 근무하는 남원과 나주 등이 대표적이고 주로 찰방이 있었던 삼례와 오수도 많은 수의 선정비가 있다. 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봉산성, 남고산성과 남관진, 교통산성 등에도 많은 비석이 있으며, 군현이 자리한 곳에는 반드시 선정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선정비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이고, 우선 전라북도 도내에서 가치있는 금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라감영 선정비

전라감영 선정비는 2020년 감영을 복원하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가공원 내에 있는 선정비를 옮겨 오게 되었다. 이곳의 선정비는 조선시대 세워진 것으로 관찰사 18기, 관관 5기, 중영장과 별장, 영의정, 암행어사 각 1기로 총 27기의 비석이 있다. 여기에는 풍수와 선정을 했던 인물로 많은 스토리가 있는 이서구의 선정비도 자리하고 있다.



복원된 전라감영 내 전라감사 선정비군(좌측, 우측)

전라감사 선정비는 원인손(觀察使元公仁孫永世不忘碑), 김재학(觀察使金公在學永世不忘碑, 觀察使趙公時偉永世不忘碑), 정대용(都巡察使鄭公大容永世不忘碑), 이서구(觀察使李公在書九永世不忘碑), 김흥근(觀察使金公興根永世不忘碑), 심경택(觀察使沈公敬澤永世不忘碑, 咸豐八年), 정기세(觀察使鄭公基世永世不忘碑), 남병철(觀察使南公秉鐵清簡善政碑, 崇禎紀元後四壬子), 남병철(觀察使南公秉鐵永世不忘碑) 등이 있다. 먼저 전라감사 원인손 선정비는 비문 내용이 있어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관찰사(觀察使) 원인손(元仁孫) 공(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아! 올해는 바로 우리 영조(英祖) 임금 때의 고(故) 판부사(判府事) 원공(元公)께서 관찰사로 재직하신 지 60년이 되는 해다. 공께서는 직무로 임금의 은덕이 두루 미치게 하였고, 정사(政事)는 인자하게 은혜를 베풀기 힘썼으니, 감당(甘棠)의 칭송과¹⁵⁾ 활불(活佛, 살아 있는 부처)이라는 칭찬을 온 도내(道內)가 같은 말로 입에 올리고 마음에 새겼다. 하물며 우리 전주부(全州府) 사람들은 유독 재생(再生)의 은혜를 입어 터를 잡고 사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있으니 참으로 '만세불망(萬世不忘, 영원히 잊지 못함)'이라 할 만하다. 지난 정해년(丁亥, 1767)에 불행히도 큰 화재(火災)가 났는데, 민가에까지 불이 번져 온 부성(府城)이 거의 다 타서 노소(老小)가 사망으로 다녀도 몸을 쉴 곳이 없었다. 공께서는 연기와 불길을 피하지 않고 몸소 다니며 직접 위로하였다. 재목과 장인(匠人)을 마련하여 집을 새롭게 짓거나 고치게 하고, 봉급에 쓸 창고에서 쌀 500곡(斛)과 돈 2천 폐미를 내어 나눠주었다. 그리고 조정에 요청하자 임금께서 특별히 구휼(救恤) 하라며

15) 감당지송(甘棠之頌)은 『시경(詩經)』 「소남(召南)·감당(甘棠)」에 나오는 이야기다. 주나라 무왕(武王) 때 소백(召伯, 召公)은 무왕의 명을 받들어 남쪽 지역을 순행하고 백성들이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당시 소백은 감당(甘棠, 팔배 나무) 나무 아래에 집을 짓고 지냈는데, 소백이 죽은 뒤에 백성들은 그를 생각하여 다시는 감당 나무를 베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감당(甘棠)은 관리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을 비유하게 되었다.

쌀 5천과 돈 2만을 주고, 또 윤음(綸音)을 내려 말했다. “말이 여기에 미치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어의(御衣)를 적셨다. 장차 이 눈물을 멀리 본주(本州, 전주)에 뿌리리라.” 우리 선왕께서 본주(本州)를 돌봐주시는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행을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고, 우리 공이 장계(狀啓)에서 하신 말씀 중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 생각할 만하다. 지금 이곳의 우리 백성들은 3천 호(戶)를 헤아리는데, 여전히 더 잡고 잘 살고 있다. 그 참혹한 재앙을 잊고 대대로 살아가면서 흠어질 걱정이 없는 게 누가 내린 은혜겠는가? 지난번에 불을 끈 사람 중에 지금까지 흰 머리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공에 관한 말이 나오면 문득 눈물을 줄줄 흘린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인정(仁政)과 혜택(惠澤)이 사람에게 깊어 파고들어 그런 것이다. 그때 통판(通判) 김공(金公)이 한마음으로 같이 구제하고 일마다 도와서 이루니 백성들에게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하는 예와 돌에 명문(銘文)을 새기는 일은 동일하게 했는데, 이 어찌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했다 할 수 있겠는가? 비석에 새겨 후대에 전하려 한 지가 이제 60년이 되었는데, 마침 이 해를 만나니 감회가 어제와 같고, 일은 마치 기다리는 자가 있어서인 것 같았다. 이에 돌 두 개를 다듬고 집을 지어 덮었다. 오른쪽에는 순상(巡相)의 비석을 두고 왼쪽에는 통판(通判)의 비석을 배치했으니 전주부 백성들의 고인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어. 이에 이 해(1827) 3월 어느 날에 세운다.¹⁶⁾

선정비는 재직하거나 아니면 바로 물러갈 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손선정비」는 1767년 감사로 있을 때 전주에 정해(丁亥) 대화재(풍남문)가 나자, 규휼하는 정이 대단하자 감당(甘棠)에 비유하고 또 살아있는 부처로 부르면서, 60년이 된 시점에 옛 일을 회상하면서 비석을 세웠다. 즉 원인손(1765~1767년 전라감사 역임)은 대화재 시 직접 화재의 현장을 둘러보고 임금께 아뢰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감사였음이 틀림이 없는 듯하다. 경기전에 봉안된 태조 영정이 위급 상황에서 전주향교 명륜당으로 피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러한 긴박했던 원인손 감사의 선정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선정비를 세운다는 것은 전주 사람이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신처럼 추앙받던 김성근 감사의 비석에는 아들을 갈망하는 아녀자들이 저녁에 달을 쳐다보며 감사의 빗돌을 구멍냈다. 그래서 유독 성혈이 확인되는 관찰사 「김성근선정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성에는 네 가지 신분이 있으니 사농공상(士農工商)이 그것이다. 맹자(孟子)께서 왕도(王道)를 설명하면서 상인(商人)이 왕의 시장에 물건을 가져다 농길 바라도록 하는 것을 인정(仁政)을 베푸는 일의 한 가지로 거론했으니, 상업(商業)이 사농공(士農工)과 함께 사민(四民)이 되는 것은 대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상인으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에 종사케 하면, 살면서 사농공(士農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그렇긴 해도 요즘 들어 사민(四民)을 동일하게 보면서 혜택을 고르게 베푸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순상(巡相) 대감 해사(海士) 김공(金公)께서 호남(湖南)에 관찰사로 부임하여 청빈한 생활을 하고 규율을 잘 지키니 한 해도 되지 않아 정사는 잘 돌아가고 백성들은 화목하여 온 고을의 사농공(士農工)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상인들이 함께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리들이 공무를 빙자하여 사익을 취했기 때문에 가게를 가진 상인이나 행상(行商)들이 대부분 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우두머리를 잡아들이고 농단(壟斷)의 폐단을 막아 피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16) 「觀察使元公仁孫永世不忘碑」 “嗚呼,今年卽我英廟朝故判府事元公按節本道之周甲也.公,職勤旬宣,政務慈惠,甘棠之頌,活佛之稱,一道同辭,口銘心鏤,而矧我本府之人,偏被再生之恩,永享奠居之樂者,眞可謂萬世不忘者已.往在丁亥之歲,不幸有回祿之災,延燒民屋,一府殆盡,老少奔波,依庇無所,公,不避烟焰,躬行面慰,經理材匠,俾新構葺,出俸廩五百斛米二千緡錢,而俵給之,請于朝,而自上特恤以米五千錢二萬,又降絲綸,曰‘言及于此,不覺涕沾于御衣,將此涕,遠灑本州’,我先王眷護本州之盛德至善,民不能忘,而我公狀辭中,憫惻之心,尤可想矣.今此我民,數三千戶,依舊奠接,忘其慘毒之災,永世生養,得免渙散之患者,伊誰之賜也.向之焦頭爛額者,今有白頭存者,而語到我公,輒出潸然之涕,則有是乎,仁政惠澤之入人深也, 伊時,通判金公,同心共濟,隨事助成,民無異同之辭矣.奠哭之禮,磨崖之銘,亦同一例,而此豈足有報於萬一也哉.思欲顯刻壽後者,六十年于茲,而適會是歲,感懷如昨,事若有待者存歟.爰伐二石,閣二覆之,右列巡相,左置通判,府民之遺愛,其在斯歟,其在斯歟.適於是歲 三月 日立.”

각자 소생하도록 하였다. 상인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면, 살면서 사농공(士農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걸 믿고 동일하게 대하여 균등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지금 우리 김공(金公) 뿐이었다. 이에 모두가 기쁘게 묻고 상의하여 그 의견이 일치하자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표창할 방법을 도모했는데, 자수(刺繡)로 글자를 만들어 공의 은혜 몇 가지를 기리고 백성의 이름 몇 명을 기록하여 일산(日傘)을 만들었는데, 만인산(萬人傘)이라 불렀다. 공의 은혜가 어찌 만 명에게만 미치고, 이를 기리는 사람이 어찌 만 명뿐이겠는가? 만이라는 것은 숫자의 전체를 이름하여 대략을 말한 것이다. 모두가 이것을 묘당(廟堂)에 올리고 임금께 알리려고 한 것인데, 공께서 이에 사양하며 보관하지 않고 버려두었다. 백성들이 말했다. “아! 우리 사또께서 자랑도 하지 않으시니 더욱 존경하여 우러러보게 된다.” 그러나 무릇 우리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대소민인(大小民人)과 말단 관리와 서리, 이성을 가진 일반 사람들까지 그 정성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갈수록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춤을 추는 것도 모자라고 노래 부르는 것도 부족하니, 돌에 새기지 않으면 훌륭한 덕을 오래도록 멀리까지 드러낼 수 없고, 초상을 그리지 않으면 존경하여 우러러 보며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장인을 시켜 빨리 돌을 마련하고 그림을 완성하여 장차 날짜를 정해 남문 밖에 생사당(生祠堂)을 세우고 모두가 모여 봉안하려고 하였다. 우리 사또께서는 작은 것까지도 살피지 않는 게 없으시니, 이 소식을 듣고서 또 엄하게 타이르며 금지시키자, 어쩔 수 없이 훗날 하기로 남겨두었다. 그것은 현산(峴山)에 세운 양호(羊祜, 221-278)의 비석, 익주(益州)에서 그런 장방평(張方平, 1007-1091)의 초상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떠난 뒤에 생각하며 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두 오늘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니, 어쩌면 그리도 덕을 베푸는 게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가 인심(人心)이 그 덕을 갚고자 하는 게 이처럼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르단 말인가? 이에 명문(銘文)을 붙인다. “돌은 닳아 없어질 수 있어도 공의 덕은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네. 그림은 색이 바랄 수 있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퇴색하지 않는다네. 감히 말하는데 과분한 칭찬이 아니라네. 아름답도다! 은혜가 사방의 백성들을 적셔주니 백성들의 칭송이 이와 같다네. 실제 덕을 진실된 마음으로 외워서 전하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러러 보리라.” 사인(士人) 박준기(朴準璣) 삼가 기록하고 유철환(柳喆煥) 삼가 씀. 감동(監董) 유인식(柳仁植) 김한규(金漢奎) 책응(策應) 김양권(金漾權) (좌측) 송정기원후(崇禎紀元後) 5갑신(甲申, 1884년) 음력 7월 하순¹⁷⁾

김성근의 공적비를 살펴보면 낮은 사람들 위치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특히 상인들의 폐단을 막아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에 사농공상의 주민들은 일산(日傘) 자수(刺繡)로 이름을 새겨 만인산(萬人傘)을 만들어 바쳤다. 이것은 묘당(廟堂)에 올리고 임금께 알리려 하였는데, 공께서는 이에 사양하며 보관하지 않고 버려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정비를 세우고 남문 밖에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 하였으나 사또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엄하게 타이르자 훗날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해사 김성근은 완주 위봉산성 태조암에서는 해봉스님이 다시 태어났다는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해사는 글씨도 명필이었고 당시 관우장군이 김성근 감사의 꿈에 나타나서, 남고산성의 관성묘도 이 무렵 신축할 때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한다. 또한, 해사 김성근의 불망비는 하나 더 있다. 비의 전면에 선정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

17) 「觀察使金公聲根清白公明愛恤碑」 “民有四,士農工商是已,鄒夫子陳王道,以商賈願藏於市,爲發政施仁之一事,商之與士農工爲四民者,蓋有以,而使商民安業,則居可知士農工矣.雖然近世之一視四民,均施惠澤者,能幾人哉.惟我巡相大爺海士金公,按節湖南,水蘖自持,繩墨不頗,歲未朞,政通人和,一省有衆之業士農工者,無一夫不被其澤,而暨商民與有頌焉.問因無恒產之徒,憑公射利,居貨行貨者,殆將並受其病,乃戢厥渠魁,杜絕壟斷之弊,使病者,各得以蘇.信乎商民安業,則居可知士農工,而一視均惠者,今我公而已.於是,舉欣欣詢謀僉同,圖所以彰美其萬一,而用繡絲爲字,頌 公之德若干條,記民之名若干數,製之爲傘,傘以萬人稱. 公之德,奚但及於萬人,而頌之者,亦奚但萬人而止哉.萬者數之總名,而繫言之者也.咸思以是獻之廟堂,聞于 黠繡,而 公乃撝謙不有藏奔而拋置之.有衆曰,嘻,我 使爺不矜不伐,益有所欽仰,然,凡我士農工商大小民人府史胥徒,愚夫愚婦之粗具彝性者,其誠之發於心,愈往而愈不可遏,蹈舞之不足,歌謠之不足,謂以不鑱石,無以示久遠著盛德,不繪像,無以尊瞻視寓恒慕,乃命工而亟就石既具,繪既成,將指日,立生祠於午門外,大都會以安之.我 使爺無微不燭,有所入聞,又嚴飭而禁之.不獲已,留待後日,其與羊公峴山之石,張公益州之像,竟爲去後思而已,然民皆以今日之未竣事爲恨,何其德施之八人淡,而人心之欲報其德,若是之捷於影響也.系之銘曰, 石可泐, 公之德不泐,繪可渝,民之心不渝,匪敢言之益美,猗歟,澤洽四民,民之頌如此,曰惟以實德實心爲誦傳,嗣茲永世,瞻仰乎於萬斯千. 士人朴準璣謹識 柳喆煥謹書(우측) 監董 柳仁植 金漢奎 策應 金漾權(좌측) 崇禎紀元後五甲申流火月下浣.”

다.

賑災捐廩 재앙을 구제하려 창고를 풀고
輕徭省帖 부역을 경감하고 세금을 줄였다네.
蘇堤爰築 제방을 쌓고
歐亭共樂 정자를 지어 함께 즐기고
病農昭蘇 망친 농사가 다시 살아나도록
漑灌溥博 광대하게 물을 댔다네.
澤流無垠 은택이 흘러 끝이 없으니
茲石不泐 이 돌처럼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네.

전주를 보호하는 성(城) 동쪽 가까운 곳에 큰 연못이 있다. 연대가 오래되어 붕괴하니 아래쪽의 좋은 전답이 혹독하게 가뭄 피해를 입어 매년 흉년을 걱정하게 되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안타까워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순찰(巡察) 상공(相公)께서 하루는 견여(肩輿)를 타고 놀러 나왔다가 옛터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탄식하며 보좌진에게 말했다. “이 연못은 백성들의 근심 걱정과 관련되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고 개수(改修)해야 하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마침내 봉급 수 천의 재물을 견고 장정을 모집하여 증축하였다. 또 옛 모습대로 정자를 지어 낙성하여 쉬는 날 노는 곳으로 삼았다. 고인 물을 논밭에 대는 이익이 아래쪽으로 끝없이 흘러가니 망친 농사가 소생되는 바람을 머지않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농민 부모(父老)들이 서로 상의하여 돌에 기적(紀蹟)을 새기고 허리를 구부려 우러러보며 공경하여 영원히 잊지 못하는 생각을 담았다. 산천의 바뀐 모습, 마을의 멋진 풍경, 훌륭한 풍속의 교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형용하지 못했지만, 우리 공(公)의 은택이 마땅히 이 돌과 더불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감동(都監董) 전오위장(前五衛將) 정석희(鄭錫禧)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다섯 번째 갑신(甲申, 1884) 5월 어느 날에 제방 아래 답민(番民) 등이 세움¹⁸⁾

여기에서 부성 동쪽의 가까운 연못은 인봉제로 추정된다. 사실 이 인봉제를 통해서 아랫마을 노송동 사람들이 많은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인봉제 안의 정자도 보수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정황이 맞는다. 인봉제 안에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제방이 무너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해사 김성근 감사가 제방을 쌓아 주었던 것이다. 원래는 인봉제 아래 제방과 관련된 비석이 있었다고 전해오는데, 소식이 전무후무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 선정비는 바로 제방 밑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8) 「觀察使金聲根公永世不忘碑」 “鎮州城東幾武許，有鉅池焉。年久毀圮，下之良田美土，酷被曠災，每患失稔，識者病之。何幸我巡察相公一日肩輿出遊，審詳舊址，慨然謂僚佐，曰此池有關生民休戚，不可偏廢，而改修之，責其不在於吾儕乎。遂捐廩俸數千財，募丁增築，又因舊制構亭而落之，以爲暇日遊衍之所，淳瀦灌溉之利，下究無垠，而病農昭蘇之望，可期日而待也。於是，農民父老，相與謀詢，鐫石紀蹟，偃僂瞻敬，以寓沒世不忘之思。至若山川改觀，閭里增光，潤色風化者，有非形容區區，而我公之恩之德，當與茲石而不朽云爾。都監董前五衛將 鄭錫禧 崇禎紀元後五甲申五月 日 堤下番民等 豎。”

2. 남원 광한루와 교룡산성 선정비

남원 광한루는 요천변에 황희(黃喜)가 1419년(세종 1) 광통루(廣通樓)를 세웠는데, 1434년(세종 16)에 부사 민여공이 주변을 고치고 새로 누각을 중수하였다. 1444년(세종 26) 정인지가 누각에 올라 승경에 대하여 감탄하고 주위 경치가 월궁(月宮)의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와 흡사하다고 하여 ‘광한루’로 고쳐 불렀다. 1461년(세조 7)년 장의국(張義國)은 요천의 물을 끌어다가 누(樓) 앞에 은하수를 상징하는 커다란 연못을 파고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오작교를 가설하였다. 1855년(철종 6)에는 남원부사 이상억이 광한루 누각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호남 제일루(湖南第一樓)”라는 현판을 크게 써서 걸었다.



남원 광한루원 비석군

광한루 뒤에는 30개나 되는 선정비가 있다. 선정비 앞에는 「삼청이정사적비」가 있다. 남원부사 이식이 진상청·보민청·연호청 삼청의 문란을 바로잡은 공적을 새긴 사적비로 1748년(영조 24)에 세웠다. 대부분 남원부사들의 선정비로써 이상억, 조위수, 김영근, 민여임, 박정, 박종대, 홍집규, 조병문, 안응수, 홍병희, 정엄, 남진화, 조명교, 조진익, 남주헌, 김운현, 송상인 등이고, 그 외에 좌영장 배상규, 어사 심동신, 삼도토포사 김시풍 등이 있다. 특히 전라감사 선정비로는 이서구(李書九), 이헌직(李憲植), 이동상(李東相)의 선정비가 있다.

이서구(1754~1825)는 호는 척재로, 1793년(정조 17)과 1820년(순조 20) 두 차례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인물이다. 남원군 수지면 견두산 주변에서 잦은 재변이 일어나자 견두산을 제압하도록 호석을 남원부 중에 세워 재난을 막았다. 지금도 광한루 안에는 호운석이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일설에 판소리 단가 「호남가」를 지어 전라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전라도민을 사랑하였다고 전한다. 관찰사 이헌직의 비석은 을축년(乙丑三月日立)에 세웠고, 이동상은 1753년(崇禎紀元後三戊寅九月日立)년에 세웠다.

남원에는 북서쪽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교룡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산성을 들어가는 입구에 각종 산성과 관련된 비석이 있다. 교룡산성은 성을 쌓게 된 내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

지 않았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그 연혁은 조선 초기 이전으로 소급된다. 임진왜란 중인 1592년(선조 25)에 금산에서 창의한 승병장 처영(處英)으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의미있는 금석으로 「교룡산성중수비」가 현존한다.

임진년(숙종 38, 1712년)에 부사(府使) 이성한(李聖漢)이 교룡산성(蛟龍山城)을 중수(重修)하자는 장계(狀啓)를 순영(巡營)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올렸다. 관찰사 유봉휘(柳鳳輝 : 1659~1727)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계창(季昌), 호는 만암(晩菴)이다. 소론의 영수로 소론 4대신의 한 사람이다. 벼슬이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나, 경흥에 유배되어 죽었다. 공에게 올려 허락을 청하였다. 이 해 9월부터 필요한 양곡과 군사를 모으고 수축(修築)하기 시작하여 계사년(숙종 39, 1713년) 5월에 공사를 마쳤다. 4면을 모두 고쳐 쌓으니 그 길이가 합계 552파(把) 파(把)는 길이의 단위로 보통 두 팔을 옆으로 벌린 길이인 ‘발’의 뜻으로 6척 또는 8척에 해당되는데, 배의 길이를 나타낼 경우에는 10척을 의미하였다. 서문(西門)은 고쳐 만들고 동문(東門)은 홍예(虹霓 : 무지개 모양의 아치)로 새로 만들었다. 이에 대략 그 시말(始末)을 기록하여 둔다. 도감(都監) 장준(張儁), 별장(別將) 유수득(柳壽得), 감관(監官) 양서운(梁瑞潤), 색리(色吏) 최처외(崔處龜)·양대중(梁大重) 등이다. 승정 기원후 86년 계사년(숙종 39, 1713년) 5월 일에 완산(完山) 이성한(李聖漢)이 기록하다.¹⁹⁾



남원 교룡산성 내 비석군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전라감사 유봉휘는 남원 교룡산성을 쌓을 때 관에서 양곡과 군사를 지원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8), 「교룡산성중수비」, 『전라북도 금석문대계Ⅱ(남원,진안,장수,무주)』, 신아출판사, 99쪽, “蛟龍山城重修碑(頭額) 壬辰府使李聖漢以本城修葺事報巡營觀察使柳公鳳輝狀聞準請自同年九月劃得耗穀雇軍修築癸巳五月訖工四面改築合計五百五十二把西門改造東門以虹霓新造仍略叙其績都監張儁別將柳壽得監官梁瑞潤邑使崔處龜梁大重等云爾 崇禎紀元後八十六年癸巳五月日完山李聖漢記.”

3. 임실 봉황산과 오수 원동산 선정비

임실읍 소재 임실동중학교 뒷산인 봉황산에 현감 김종집, 서호순, 김천일, 유희진, 이창회와 군수 오응선거사비가 있다. 또한 전라감사를 역임한 「이서구선정비」가 위치한다. 전면에는 “관찰사이상공서구청덕선정비”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음기에는 승정기원후사 정해(1827년) 11월이라고 되어 있다. 이서구는 정조 17년 8월부터 정조 19년 3월까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1820년 10월부터 1822년 2월까지 또 한차례 감사를 역임했다. 임실에 있는 선정비는 두 번째 왔을 때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수찰방이 있었던 이 곳의 선정비들은 원동산에 모여 있다. 관찰사의 선정비는 2기, 남원부사의 선정비는 3기, 오수찰방 선정비는 5기, 파비(破碑) 2기 등이 흩어져 있다. 오수의견비 서쪽에 한 줄로 세워져 있다. 「관찰사민진원유혜선정비」는 기미년(1715) 3월에 세웠다. 바로 옆 전라감사를 역임한 「원두표선정비」가 있다. 원두표는 전라감사로 1634~1636년까지 근무한 이후 승정 9년(1636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동산에 관찰사 「장만 선정비」가 있었다고 『용성지』 고적조, 「巡察使張晩善政碑(순찰사장만선정비)」에 기록되어 있다.



임실 오수 원동산 비석군

4. 태인의 피향정과 고부 군자정 선정비

태인은 최치원과 관련이 있는 피향정이 있어, 상연과 하연이 있어 연향(蓮香)이 절경을 이루었다. 전라도에 부임하는 관찰사는 꼭 피향정을 갔으며 이곳에는 다른 곳과 비교하여 많은 감사의 선정비가 있는 곳이다. 피향정 마당에는 21기의 관찰사와 현감, 어사의 선정비가 있으며, 전라감사로는 이서구, 김병교(1857년), 서기순(1845년), 민정식(1892년), 김홍근(1835년) 선정비가 있으며, 이곳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아버지를 위해 세운 “현감 조규순 영세불망비(1893년)” 가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찾는 곳이다.

고부는 백제시대의 고사부리성 있고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마을 앞에 군자정이 위치하고 있다. 처음은 연꽃이 사방을 둘렀다 해서 연정(蓮亭)이라 부르다. 군자정으로 바꾸었

는데 아마도 연은 ‘연화지군자자야(蓮花之君子者也)’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전해오는 설화에 의하면 조선 중기 이후 고부마을에 인재가 나지 않아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도 없고, 군수들이 온지 1년도 안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것은 연정이 황폐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서 1673년(현종 14)에 이후선이 연못을 파고 정자를 수리하였는데 그 후로 인재가 나왔다는 설이 있다. 이후선은 팔과정의 인물로 전주 사람이다.

군자정 앞에는 선정비가 22개인데 이중 성한 것은 두 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허리가 잘린 상태이다. 아마도 선정비를 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웠지만 가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반토막 내어 땅속에 묻었던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여기 현재 있는 것들은 부근에서 수습된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 조병갑이도 보이고 이면상이도 보인다. 군자정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고부군민에게 탐학을 일삼는 한편 풍류와 사치를 일삼았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모두 선정비를 매도해서도 안 될 것이다. 흑백을 잘 가린다면 이것도 분명히 좋은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어사 이면상도 다른 곳에서(송광사) 잘린 비석을 보았기 때문이다.

5. 김제 금구향교 앞 선정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에 있는 금구향교 앞에는 선정비들이 모여있다. 이 선정비는 금구향교 진입로 오른쪽과 왼쪽에 37개의 비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비들은 옛날의 금구현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서 그 보존을 위하여 이곳에 모아 놓은 것이다. 우측에 20기 좌측에 17기 세워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선정비와 불망비이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아주 정갈하게 쓴 전라감사 「이서구 선정비」와 철비로 만든 관찰사 「서상정 선정비」이다. 이서구 선정비는 글씨는 단아한 해서체와 약간의 행기를 가미한 것으로 보아 창암 이삼만의 필획과 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작연도가 창암 이삼만이 살았던 시대와 맞아 떨어져 아마도 그의 글씨로 추정되는 글씨이다. 선정비의 주인공인 이서구는 전라도 관찰사를 하면서 많은 공적비가 있는데 전라감영을 비롯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아마도 전라도에 남아있는 공적비 중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이서구는 지역의 지명과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전주 부근의 오도재, 삼례, 구만리 등이 모두 이서구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다. 이서구는 현실정치뿐만 아니라 문자학(文字學)과 전고(典故)에도 조예가 깊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그는 한 번도 북경에 가본 일이 없었으나 홍대용, 박지원의 문하에 출입하며,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북학파와 실학파의 핵심 인물들과 교류하고, 학문의 토론과 문학을 연마하면서 시국을 크게 내다보고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김제 금구향교 앞에 비석군

특히 관찰사 「서상정영세불망비」는 동치 연간인 1870년(고종 7)에 이임한 뒤 세운 철비이다. 이 철비는 일제강점기 쇠를 공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철비가 없어졌으나 도내에 몇 기 남지 않은 철비 중 하나이다. 좌대에 세워진 비신 위에는 문양이 새겨졌다. 서상정의 공적비는 남고산성에도 있어 그의 행적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서상정(徐相鼎 1813~1876)은 대구서씨로 자는 이응(而凝)이고 예조판서 서유녕(徐有寧)의 증손자며, 홍주목사(洪州牧使) 서호순(徐灝淳)의 아들이다. 그는 1834년(순조 34) 진사과에 합격하고 전부(典簿)를 지냈고 1848년 증광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1859년(철종 10) 성균관대사성에 오르고, 1866년(고종 3) 전라도관찰사로 병선(兵船)을 개수하여 군비를 정비하고, 세정(稅政)을 바로잡고 수재민을 구제하는 등 민정(民情)을 위무(慰撫)하는 데 힘썼다. 이후 1870년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거쳐 이조참판이 되고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873년 대왕대비전의 존호를 높이는 데 참여하여 가자(加資)되고, 그해 형조판서에 올랐다. 이어 1875년 이후 형조판서·사헌부대사헌·한성부판윤·공조판서 등 내외 요직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서상정은 전라도 관찰사로 와서 지방을 순회하며 선정을 베풀었고,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전선(戰船)과 거북선을 청산진에 잘 배치하여 진영을 새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김제 연정동 홍의석 영세불망비

김제시 연정동에 있는 전라감사 「홍의석영세불망비」는 김제에서 부안가는 초입 대나무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선정비는 높이 267cm, 너비 63cm의 크기이며 갖석이 있다. 이 비의 앞면에는 김제 시내의 대제(大堤)를 복구할 당시 총위사·전라도관찰사와 어사 및 김제군수 등이 앞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대제 복구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다. 대제는 김제 지역의 농사를 짓는 중요한 관개(灌漑)시설로 옛 김제군지도(규장각 소장)에 나오는 명칭이다. 이 비에는 ‘총위사서공희순(總衛使徐公憲淳) 관찰사홍공의석(觀察使洪公義錫) 어사유공치숭(御史俞公致崇) 군수(郡守) 정공세창(鄭公世昌)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라고 쓰여있다. 이 비석은 한 때 붉은 피눈물이 흘린다 해서 메스컴을 탔 던 비석으로 지금도 동네 사람들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피눈물을 흘린다는 비석으로 전해오고

있다.

7. 만경읍사무소 앞 선정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만경읍사무소 앞 비석군 모습이다. 도로변에 11개의 비석이 동남-북서 방향으로 세워져 있다. 이 비들은 만경읍 내에 흩어져 있던 조선시대의 공적비 가운데 일부를 모아 놓은 것이다. 8기는 불망비이고, 2기는 선정비, 1기는 청백비이다. 이중 감사비는 가장 오른 쪽에 있는 이서구영세불망비(도광 5년, 1825년)를 비롯해서 조봉진 선정비(도광 7년, 1827년)이다. 이 두 개의 비석은 선정에 관한 기록이 없어 만경현에서 어떤 선정을 했는지는 찾기가 어려워 아쉽다.



김제 만경읍사무소 앞 선정비



군산 옥구향교 선정비

8. 옥구향교 선정비

옥구향교 옆에는 최치원을 모시는 문창서원과 자천대가 자리하고 있다. 들어오는 입구에는 관찰사를 비롯한 현감의 선정비가 쪽 늘어서 있다. 도순찰사 이병문 선정비 전면은 “都巡察使 李公秉文清德愛民善政碑(도순찰사이공병문청덕애민선정비)”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옥구는 해안가이고 관리하기가 힘든 지역인데도, 감사들의 선정비가 있어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라 하겠다.

9. 고창읍성과 흥덕향교 선정비

고창읍성 비석군은 현재 모양성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2열로 있는데 모두 18기의 비석이 배치되어 있다. 고창읍성 비석군은 원래 고창현 내에 산재하던 것들인데, 보존을 위해서 근래에 고창읍성으로 옮겨놓았다. 명문의 내용으로 볼 때 현감, 관찰사에 대한 영세불망비 4기, 현감과 관찰사에 대한 선정비 12기, 유애비 2기가 있으며, 건립연대는 대개 1639년에서 1881년 사이의 고창 수령을 위한 것으로, 재직할 당시에 세운 것들이다.

금석문의 내용은 ‘현감 이항 청백비’, ‘관찰사 이근호 영세불망비’, ‘군수 이기석 애민청덕선정비’, ‘현감 심한영 청덕선정비’, ‘현감 박면하 애민선정비’, ‘현감 한형교 청

덕비’, ‘현감 최영석 만세불망비’, ‘현감 홍명일 청백선정비’, ‘현감 왕계주 영세불망비’, ‘현감 이종응 청덕선정비’, ‘현감 홍우석 애민선정비’, ‘현감 변세의 청덕선정비’, ‘현감 정형기 청백선정비’, ‘고 직장 신광흡 유애비’, ‘통정대부 신재효 유애비’, ‘군수 신상우 선정비’, ‘현감 이관복 애민선정비’, ‘순찰사 이서구 영세불망비’ 등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관찰사 선정비는 이근호와 이서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근호 선정비는 개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며, 앞면 좌측에 계묘 삼월이라는 간지가 있다. 또 이서구 선정비는 개석과 비신이 한몸이며 개석 부분에는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고, 간지는 임오(1822년) 십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창읍성의 관찰사선정비는 모양성을 축조하는데 공이 있어서 세웠을 것으로 가늠해 본다. 모양성은 구역별로 각 현에서 쌓았다는 뜻말이 현존하고 있어 같이 연관시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고창 흥덕향교 선정비

흥덕향교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총 25기의 비석이 자리하고 있다. 비석의 내용으로 분류하면, 홍학비 2기, 선정비 12기, 불망비 8기, 기타 3기 등이다. 흥덕향교에 대부분 공적비는 이 일대에 산재해 있던 것을 이곳에 모아놓았다. 비석의 형태는 이수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도 있지만 월석으로 아주 장식이 없는 비석도 있다.

금석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감 성원 진홍학비’, ‘현감 조영무 청덕홀민선정비’, ‘행군수 이영운 홍학비’, ‘유학 김상년 출의불망비’, ‘직원 이종구묘 성수학불망비’, ‘현감 유석 애민선정비’, ‘군수 최정익 청덕선정비’, ‘군수 김건한 영세불망비’, ‘현감 민태식 애홀선정비’, ‘현감 박원양 청덕홀민영세불망비’, ‘현감 윤석만 영세불망비’, ‘현감 김정연 거사비’, ‘현감 한석기 청덕홀민선정비’, ‘현감 홍회록 청덕애민선정비’, ‘현감 우척하 □□□□비’, ‘현감 김상두 홀민선정비’, ‘현감 유성하 청덕홀민선정비’, ‘현감 이현 청덕선정비’가 있다.

전라감사 선정비로는 ‘관찰사 이경직 청덕선정비 2기’, ‘순상 김성근 청덕애민선정비’, ‘관찰사 이호준 청덕홀민불망비’, ‘관찰사 서상정 청간홀민영세불망비’, ‘관찰사 김병교 청간홀민불망비’ 등이 있다. 비석을 보면 공적의 내용을 대부분 적지 않지만 일부는 앞면에 함축된 글귀로 공적을 적은 경우도 있다. 비록 25기의 많은 비석들이 줄지어 있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고창 지역 연구 및 인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10. 삼례역참 선정비

삼례역참은 오수역참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 지역이었다. 삼례역은 고려 전기로부터 조선 말기까지 운영되었던 역참이었다. 삼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북쪽으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전라도에서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수부인 전부의 북쪽 관문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삼례역은 중앙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수역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삼례역은 그 규모가 크고 그 기능 또한 다른 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삼례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삼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도 전개되었으나, 삼례에서 1894년 9월 동학농민군이 제 2차를 봉기한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삼례 동부교회가 있는 일대가 삼례역참터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완주도서관 앞마당에는 관찰사를 비롯한 삼례찰방 등의 선정비들이 모여 있어 그 옛날의 삼례역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완주도서관 동쪽에는 관찰사 비석으로는 원두표 2개, 서기순, 이돈상, 이현목, 이도재, 이승우 등이 있고, 약간 부러진 서유구(徐有槩) 청간거사비가 있다. 특히 원두표선정비는 음기에 공적 내용이 있어 탁본을 한 다음 해독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석이다.

삼례는 찰방이 있던 지역으로 찰방을 비롯한 통관, 판관, 어사 등의 선정비 등이 있다.

11. 완주 봉동 장거리 선정비

완주군 봉동읍 장거리 당산제는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7월 20일 되면 ‘봉동 당산제단’ 이라고 쓰인 제단이 있는 느티나무가 아래에 제사를 드린다. 이곳은 원래 옛 고산현의 처형장이 있던 곳으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고 홍수로 마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원하기 위해 당산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당산제와 달리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다리 아래 만경강 강가 모랫판에서 횃불을 두르고 씨름을 하였다. 지금도 당산제는 전승되고 있으며 당산제를 올렸던 음력 7월 10일은 봉동읍면민의 날로 정해져 당산제와 씨름이 진행되고 있다.(지금은 10월 10일 변함)

완주군 봉동읍 상장기공원에는 노거수들이 우거져 있고 16개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16개의 선정비에는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수하여 물난리를 면하게 해주었거나 물난리 중에 많은 사람을 구제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

이곳에는 이목연 관찰사 선정비를 비롯해서 서기순, 윤영신 등의 선정비가 있다. 특히 이목연 감사는 추사가 제주도로 귀향갈 때 창암 이삼만을 만나게 주선한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목연관찰사선정비」 앞면에는 “옛 정유년에 감사의 유풍이 있어(在昔丁酉 大家遺風) 완민들이 덕을 칭송하고 善을 잇고자 기술후네(完民頌德 善繼善述)”. 라고 써여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1837년(정유)에 봉동의 주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완주 봉동 장기리 공원 내 선정비군(중간에 「이목연 영세불망비」)

12. 여산동헌 척화비와 선정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에 옛 여산현 관아터가 있다. 여산현은 여산동헌과 군사 시설인 북진영이 있어 남한산성을 갈 때 의병과 관병 그리고 승병들이 모였던 곳이다. 여산동헌은 여산면 사무소를 지나 여산초등학교 우측에 있고 동헌 경내에 척화비와 선정비가 서 있다. 척화비는 해서(楷書)로 써져 있으며, 크기는 높이 114cm, 폭 46cm, 두께 9cm이고 재료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통비(通碑)이다. 이 비는 병인양요 이후 대원군이 강한 항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서울 종로를 비롯하여 동래, 부산진, 함양, 경주 등에 세운 것이다. 척화비를 도처에 세웠으나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이 실각하자 일본공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철거되어 인근 땅에 묻혔다가 1915년 이후에 발견되었다. 전북에는 고창읍내 성 안에 있는 척화비와 이곳 두 곳만이 남아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척화비의 전면에는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를 하자는 것이니, 화해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고 써여 있다.

동헌 건물은 조선시대 여산 고을수령(여산부사)이 업무를 보던 청사로 3단의 계단식 건물터로 조선 말에 지은 건축으로 추정된다. 벽과 방의 구조는 근래 일부 개조하여 옛 모습을 잃었지만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추녀와 청마루에서 한식 목조건물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고,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옛 모습을 간직한 조선시대 지방관청 건물의 하나이다. 척화비 옆에는 여산에 부임하여 온 여러 관리의 선정비(善政碑)와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같이 세워져 있으며 들어오는 입구에도 공적비가 있다.

여산동헌 관찰사 선정비를 살펴보면 왼쪽에 ‘관찰사겸순찰사 김공□홀민선정비’와 ‘관찰사겸순찰사유공청덕홀민만세불망비’, ‘도순찰사 조성교선정비’를 비롯해서 부사와 군수 등의 비석이 있다. 또한 인근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에는 ‘전순찰사 윤영신애민선정비’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건립 경위를 조사할 가치가 있다.



익산 여산동헌내 비석군(척화비 포함)



관찰사 김공□홀민선정비

13. 무주 한풍루 선정비

무주 한풍루는 무주의 자연환경 및 관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무주의 풍수를 말할 때 배를 닮은 지세라 해서 행주형(行舟形)이라 한다. 고대에는 모든 물자 수송을 배로 했기 때문에 돛단 배가 자주 등장한다. 배는 물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행주형은 강을 끼고 만들어지는데 바로 무주도 남천을 낀 행주형으로 알려져 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무주의 진산(鎭山)이 있는데 바로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주 산천(山川)조에 “노산(爐山)은 현의 북쪽 일리에 있으며 진산이다(在縣北一里鎭山)” 라고 하였다. 노산(향로봉)에서 보면 남쪽 한 중앙에 커다란 아사(衙舍)가 자리 하며 바로 앞에 하나의 누정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명승(名勝) 한풍루(寒風樓)이다.



무주 한풍루 선정비

무주 한풍루 옆에는 선정비가 있는데 붉은 글씨로 글자를 덧칠했다. 관찰사 선정비로는 ‘관찰사서공기순애민청덕불망비’와 ‘관찰사김공성근영세불망비’가 있다. 그리고 무주에는 무주향교에서 10기의 선정비가 있는데 ‘관찰사김공성근영세불망비’가 자리하고 있어 무주향교 증개축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주향교 내 비석군

14. 전주 남고산성 선정비

남고산성은 전주의 방어적 목적에서 토성이 있었고 또 위에 석성을 쌓아오던 것으로, 역사는 후백제부터 시작되었던 산성이다. 이곳에는 남고진별장이 자리하면서 만마관과 연결지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책무를 다하였다. 남고산성을 가려면 요즘 반석천을 끼고 오르면 새로 복원한 정몽주가 마셨다는 우물이 있다. 여기서 조금 오르면 이정란(1529~1600)을 모신 충경사가 나오고, 채석강을 돌아가면 삼경사에 이른다. 삼경사 맞은편 성문입구 주변에 많은 공적비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현지에 있는 바위에 새긴 것이 특색이라 하겠으며, 선정비가 있는 바로 앞에는 제단처럼 생긴 넓직한 바위가 있어 예전에 이곳에서 예를 행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관성묘로 들어가는 남고산성 입구(서암문지)를 막 지나 왼편 산자락 성벽 바로 안쪽에 비석군이 있는데 전라감사 「서상정선정비」도 여기에 있다. 고종 3년(1866)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고종 7년(1870)에 떠난 서상정을 위해 자연암석에 새긴 선정비로 ‘觀察使徐公祖鼎清德善政碑’라고 새겨져 있다. 서상정(1813~1876)은 헌종 14년(1848)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철종 10년(1859)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부임하던 중 병선(兵船)을 개수하여 군정비에 힘쓰고 세정을 바로잡았으며 수재민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이후 형조 판서, 사헌부 대사헌, 한성부 판윤 등 요직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서암문지에는 철종 7년(1856)에 세운 ‘別將宋侯東玉善政碑’와 ‘判官姜侯駿秀永世不忘碑’가 관찰사 서상정선정비와 함께 자연암석에 새겨져 있다. 또 바로 주변에는 철종 9년(1858)에 세운 ‘別將金侯□字清德善政碑’와 ‘別將張侯永豐永世不忘碑’ 그리고 고종 23년(1886)에 세운 비석으로 ‘別將李侯信文清德善政不忘碑’ 늘어서 있다. 서암문지에서 관성묘쪽으로 오르면 옛 병영터 앞에 있는 ‘別將崔侯永宇清德善政碑’가 고종 6년(1869)에 건립되었다. 이 선정비는 다른 비석과 다르게 음기가 새겨져 있어 남고산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별장에

대한 공적이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또 좁은목 약수터 우측 30미터 지점에는 ‘觀察使元公景淳·判官金候尙默 永世不忘碑’, ‘判官李候昌中永世不忘碑(乾隆 戊戌 三月)’, ‘判官韓候璵永世不忘碑’가 있다. 이곳은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로 관찰사와 관관이 군사적시설 및 도로를 확장하는데 노력해서 선정비를 세우지 않았나 사료된다.

15. 위봉진 선정비와 흥인한 순행 기록

위봉산성은 1675년(숙종 1)에 7년의 세월 동안 7개 군민을 동원하여 쌓았다고 전해지며, 이곳 산성의 용도는 지형을 이용하여 유사시 경기전의 태조 영정과 조경묘의 시조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관찰사는 전라도 전주 땅에 부임하면 기회를 봐서 꼭 순찰을 해야 하는 곳이 위봉산성의 위봉진이다. 이곳을 점검하고 혹 문제가 있으면 성을 다시 쌓도록 지시하는 것이 관찰사의 임무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에는 다른 곳보다 많은 관찰사의 선정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위봉진에는 다음과 같은 선정비가 있다. ‘관찰사조공성교(觀察使趙公性教)’, ‘위봉진관한후용영세불망비(威鳳鎮官韓候鏞永世不忘碑)’, ‘관찰사심공경택영세불망비(觀察使沈公敬澤永世不忘碑)’, ‘관찰사심공이택영세불망비(觀察使沈公履澤永世不忘碑)’, ‘위봉진관한후제희불망비(威鳳鎮官韓候濟禧愛恤不忘碑)’ 등 5기의 비석이 있다. 「위봉진중수기(威鳳鎮重修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주부의 동서방향으로 10리에 산이 있는데 높이 솟아 굽이굽이 꿈틀거리고 험준한 것이 마치 용이 또아리를 틀고있고, 봉황이 날아오르는 형세와 같아서 그 이름을 위봉(威鳳)이라 하였고, 성(城)을 쌓고, 진(鎭)을 두어 장차 진우(鎭宇)가 점점 쇠퇴해지고, 아침저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여 준비한 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 일은 마땅히 수리하여 고치는 것이 앞사람 충의(忠意)가 아니겠는가. 일은 크고, 힘은 약하여 먼저 주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행하게도 순찰사 이상황(李相璜)때 사정을 살펴보고, 그 뜻을 허락하여 20여포(包) 쌀(米), 진장(鎭將)이 또 백여 꾸러미의 돈을 출연하고, 재물을 모아 일을 준비하였고, 그 성공을 알렸다. 좁고 누추한 것은 넓게 뚫렸고, 어지럽게 흩어져 분간하지 못하던 것이 산뜻하고 깨끗해졌다. 앞을 빛내고 뒤로 이으니 아름답다. 장대하구나. 골짜기의 물, 산봉우리, 구름이 한결같이 위수(流水)와 짝을 이루는구나. 푸른나무와 붉은 잎새의 취태(翠態)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지세(地勢)가 비록 기이하나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가옥들은 비록 세워졌으나 저절로 빼어날 수 없기에 글을 써서 칭송한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대략을 적는다. 가경(嘉慶) 16년(1811) 신미(辛未) 초가을 별장(別將) 김치조(金致祚) 절충장군(折衝) 장영풍(張永豐) 씀.

위에서 보듯 위봉산성 중수기를 보면 전라도관찰사는 위봉산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봉진에서 위봉폭포 쪽으로 가는 길에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남기 암각서가 있다. 즉 관찰사 흥인한 위봉산성 순행기록 암각서(觀察使 洪麟漢 威鳳山城 巡行記錄 岩刻書)는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 51-2에 있다. 이곳은 위봉산성에서 위봉사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바로 옆에는 위봉폭포의 위용(威容)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위봉사에서 수만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산세가 험하고 아주 가파른 지형이다. 바로 이곳에 위봉산성과 위봉폭포를 보기 위하여 왔던 순행자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이 암각서를 통하여 관찰사 및 어사들은 위봉산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는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옮기기 위하여 위봉산성이 튼튼한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암각서는 전라감사 홍인한이 1757년 9월에 도입하여 다음 해인 무인년(1758) 봄에 위봉산성을 순행(巡行)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전라감사를 필두로 독운어사와 동행한 풍산홍씨들이 기록되어 있고 관찰사와 어사를 모신 군관과 전직 관리들이 동행하였다. 암각서는 암벽을 약간 다듬은 상태에서 이름을 새긴 것으로 바로 밑은 낭떠러지여서 굉장히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현재는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옆으로 위봉터널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 암각서가 있는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지만 암각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근방으로 옛길이 지나갔던 것은 사실인 듯 하다. 그리고 암각서 말미에는 戊寅元春下澣(1758)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찰사 재직 당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도관찰사 홍인한
 독운어사 홍양한
 동행자 홍낙연 홍규보 이재성
 관찰사 군관(軍官)
 전영장 신광익 이백령
 전현감 신석기
 전만호 이덕림
 어사군관
 전선전 전태상
 독운어사겸관찰사 군관 홍선보
 관찰사겸어사 중방 안명현
 산성별장 서경유
 무인년(1758) 원춘 하한에 기록함²⁰⁾



관찰사 홍인한 위봉산성 순행기록 암각서

관찰사 홍인한 위봉산성 순행기록 암각서는 위봉산성 선정비처럼 이름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같이 왔던 중요한 인물을 모두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먼저 암각서의 표면이 거칠어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 觀察使 洪麟漢(1757년 전라도 관찰사 부임) 督運御史 洪良漢 同行 洪樂淵 洪圭輔 李再成 觀察使軍官 前營將申光翼 李栢齡 前縣監辛錫箕 前萬戶李德霖 御史軍官 前宣傳田泰祥 督運御史兼觀察使軍官洪善輔 觀察使兼御史中房安命顯 山城別將徐慶裕 戊寅元春下澣(1758)

16. 태조 이성계의 기도처 임실 상이암 암각서

태조 이성계는 운봉 황산전투에서 아지발트를 무찌르고는 바로 개경으로 가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하기 위하여 들린 곳이 임실 상이암이다. 상이암(上耳庵)이란 임금님 귀에 성수(聖壽) 만세(萬歲) 소리가 들렸다 해서 붙여진 암자 이름이다. 이곳 상이암은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와서 보니 산 기운이 맑고, 물이 맑고, 또 기(氣)가 맑다 하여 ‘삼청동(三清洞)’이라는 어필을 남겼다고 전한다.

태조 어필이 보관된 ‘삼청동 비각’ 뒤 산봉우리에는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다. 주로 암각서가 새겨진 곳은 상이암에서 작은 냇가를 건너 삼청동 비각이 있는 뒷산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산 정상에도 암각서가 있는데 이곳을 오르려면 ‘삼청동 비각’에서 약간 길을 내려가다 다시 바위를 타고 솔밭길과 암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야 한다. 이곳에서 향을 피우면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용트림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

이곳에는 잘 다듬은 평평한 바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에는 “안사(按使) 김문현(金文鉉, 1893년) 지현(知縣) 민충식(閔忠植, 여흥인, 1893~1894년 임실현감 역임) 子 丙台” 라고 새겨져 있으며, 우측에는 진사(進士) 오재연(吳在淵)이 기록되어 있다. 즉 상이암은 동학농민혁명 때 소실되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동학농민군이 전주로 입성하자 전주성을 버리고 달아난 김문현 전라감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김문현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곳 상이암에 들려 기도한 후 암각에 이름을 새긴 것으로 보여 진다.



임실 상이암 암각서

삼청동 비각 뒤쪽에도 암각서가 많이 있는데 열거하면 ‘知縣 趙性憲, 功德主 李奉弼, 南原府使 崔錫斗, 文在國 文在學(癸巳)’ 과 전서필의로 쓴 ‘詩道守 孫秉浩 李春植 李義炫’의 이름과 ‘張志雨, 經歷 金東旭, 安鎬瑩, 尹卓, 朴昇凡’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삼청동비각 오른쪽에는 ‘居士 李顯九, 都正 尹泰一, 進士 李炳儀, 蓮山處士 李璟宇’ 등이 있으며, 바로 옆에는 바위를 다듬은 후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해서로 썼다. 이 글씨는 북조체의 서체가 가미되어 운필하였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사경체 비슷하게 엄격한 맛이 있다. 또 축단(築

壇) 시주(施主)에 ‘尹相定, 尹相完(戊子 七月) 閔廣植, 金俊文, 林炳瓚, 朴辰淑 七星閣重修主(乙亥, 1935추정) 按使 李憲植 知郡 林鏞炫(1902~1904 임실현감 재직) 局長 金永振 參奉 沈鎮相 崔圭瑞, 進士 李錫圭, 參奉 李光儀, 進士 梁基衡’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按使 閔正植 知郡 閔永大와 위쪽에 按使 金奎弘 知郡 申槲’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은 바위에 더 많은 기록이 있지만 이끼와 잡초로 인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17. 정여립 생가터 파소봉 아래 선정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파소봉 아래에 많은 선정비가 산재해 있다. 이곳은 정여립 생가터로 알려진 곳이다. 정여립은 당쟁의 중심인물로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를 불러온 장본인으로 전주에서 태어나 죽음을 맞은 곳은 진안(鎭安) 죽도(竹島)였다. 정여립의 운명을 결정지은 기축옥사가 벌어져 정여립과 대동계의 무리가 황해도와 호남에서 서울을 공격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사람들이 고변했다. 조정에서는 정여립을 역적으로 보자, 정여립은 진안 죽도로 도망쳤다가 자결하였다. 이에 정여립이 태어난 마을도 역적이 태어난 마을이라 하여 마을을 파서 없애고 파소(破沼)마을이라고 하고 윗 산봉우리는 파소봉이라 불렀다. 이곳은 한벽당에서 각시바위를 거쳐 색장동, 은석동을 거쳐서 전주천을 따라 올라오는 길목으로 부남면과 상관의 경계지점에 해당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폐철도를 이용해서 마중물궤리리가 운영되었는데, 지금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시대 부남면과 상관면의 접경지역인 색장동 산 66-2, 872-246부근에서 마중물궤리리(파소모탕이) 입구쪽으로 가서 새로운 철도길 동쪽 산아래길(신리 산 2-1)로 연결된다. 약 3년 전에 색장동 872-319에서 조선식으로 돌을 쌓은 우물이 발견되어 복원되었고,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감사들의 선정비가 대거 발견되어 있다.



정여립 생가터 파소봉 아래 선정비

파소봉 아래의 선정비는 전주천을 따라 만마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색장동 산 66-2(미정확) 부근에 정씨들 묘소가 있는데 바로 산쪽으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이곳에는 ‘관찰사 조강하, 어사 심상학, 판관 민영직 영세불망(觀察使 趙康夏 · 御史 沈相學 · 判官 閔泳稷 永世不忘)’ 이 새겨져 있고, 바로 옆에는 ‘판관 이돈상 영세불망비(1865년)’ 가 있으며 관찰사로 다시 왔을 때 세운 ‘관찰사 이돈상 영세불망(觀察使李敦相 永世不忘, 1878년)’ 가 같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어사 어윤중 영세불망비(1878년)와 어사 조구하 영세불망비(1846년)’ 도 확인된다.

이곳에서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바위에 선정비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신리 산 2-4부근에 넓은 바위를 다듬어서 선정비를 새겼다. 중앙에 관찰사 ‘원인손 판관 김광묵 영세불망(觀察使 元仁孫 判官 金光默 永世不忘, 1852년)비’ 가 있고 왼쪽에 ‘관찰사 김경선, 판관 오궁묵 영세불망(觀察使 金景善 判官 吳肯默 永世不忘, 1886년)비’ 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관찰사 이유원 영세불망(觀察使李裕元 永世不忘, 1852년)’ 이 있는데 음기에 종이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옮겨 본다.

楮弊革罷 닥나무(한지)의 폐단(供出)을 혁파하니
 薶黎咸蘇 어둠던 민중들이 모두 소생(蘇生)하네.
 捐財補坎 재물을 내어 손해 본 것을 채워주고
 防禍立規 화를 막고 법규를 잘 세우네.

또 완주군 상관면 신리 산 2-1부근은 새로운 철도가 나면서 일부 많은 형질 변경되었지만 다행스럽게 선정비가 남아 있었다. 바위에 ‘관찰사 정원시 영세불망(觀察使 鄭元始 永世不忘: 건흥 기해년)비’ 가 있고 바로 옆에는 ‘판관 김좌현 애민청덕 선정비(判官 金佐鉉 愛民淸德 善政碑)’ 가 존재한다. 또 여기서 월암마을 조금 못가면 ‘관찰사 조한국영세불망비’ 와 희미한 군수의 선정비가 있다.

IV. 맺음말

전라감사의 선정비들은 비석을 세울 때 주민들의 혈세를 축냈다고 한다든가,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폭정을 한 현감의 선정비가 두동강이 났다든가, 그래서 선정비는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선정을 안 사람들의 결과물처럼 인식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선정을 안 했는데도 이임하기 전에 선정비를 세우라는 무언 중의 강압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선정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이번 전라감사의 많은 선정비들이 다가공원에 집단으로 있다가, 전라감영이 복원되면서 관풍루 동쪽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전라감사의 선정비를 비롯해서 부윤과 중진영장 그리고 어사의 선정비도 함께 왔다. 그런데 그동안 선정비는 내용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감사 선정비에 음기가 있는 비석들이 있었다. 이에 내용을 살펴보니 감사의 활동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특히 원인손의 선정비는 60년이 지나서도 부민들이 선정을 잊지 않고 주감을 맞이해서 빗돌을 세우고 추모를 했다. 또 김성근 감사는 상인들에게 진심으로 잘 하자, 만인산(萬人傘)을 만들어 바치는 등 초상화를 제작하여 생사당을 만들려고 했다. 또 부성 동쪽의 제방과 정자를 수리하여 부민들과 함께하였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정치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사항이다.

전라감사의 선정비와 흔적은 전북을 떠나 전남, 제주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전남과 제주까지는 여력이 없어 접근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바이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전라감사에 대한 자료집이 정리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전라감사의 행적이 하나둘씩 벗겨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완산지』, 『용성지』, 『운수지』, 『호남도선생안』.

이태영(2021), 『완판본 인쇄·출판의 문화사적 연구』, 역락.

전라문화연구소(1990),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대흥.

전라북도·전북향토문화연구회(2006), 『전라감사(상권)』, 신아출판사.

전라북도·전북역사문화학회(2007~2011),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V』, 신아출판사.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2012), 『전북지방의 선정·공적·기념비』, 신아출판사.

전주문화원(2020), 『전주금석문』, 신아출판사.

이동희(2021), 「조선시대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역사문화학회.

토론문

이동희, 새로 발견된 전주자료 『풍패집록』, 그 내용과 가치에 대한 토론문

송만오(전북대학교)

본 논문은 채경목이 엮은 『풍패집록』을 서지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풍패집록』은,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서, 그 안에는 전주의 옛 모습을 복원해 나가는 데 있어 참고하여야 할 귀중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자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이번 발표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다. 『풍패집록』을 찾아내고 또 『풍패집록』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 발표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풍패집록』의 발견 경위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풍패집록』의 편찬 배경과 체제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풍패집록』의 전체 내용을 일별하면서 특히 전라감영의 주련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다. 『풍패집록』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완산지와 비교한 대목은 『풍패집록』의 사료적 가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의 언급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본고는 『풍패집록』을 주목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또는 『풍패집록』의 편자인 채경목을 최초로 조망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가 향후 『풍패집록』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풍패집록』의 활용 방안이다. 『풍패집록』이 전주의 지난날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도움을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언급 해주었으면 한다. 『풍패집록』에 수록된 글들을 참고하여, 지금은 사라진 현판을 복원하자는 정도는 그 누구라도 생각해 봄직한 방안인데, 그 외에도 획기적인 활용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풍패집록』의 번역에 관한 것이다. 분명한 바는 아니지만 추측건대, 『풍패집록』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부나 표나 시와 같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문장일 것으로 짐작된다. 주련이나 누정기 등이 대부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글들은 웬만한 한문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된 뜻인지 알지를 못한다. 『풍패집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문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그 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번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언급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는 『풍패집록』의 내용을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비교란 타 감영이나 타도와 비교를 말한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라감영의 주련 내용과 충청감영이나 경상감영의 주련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각 도의 도정에 임하는 도백들의 철학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산성이나 누정 등에 관한 기록도 그런 비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법하다.

김순석, 「전라감사계록의 구성과 성격」

홍성덕(전주대)

본고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전라감사계록』(규15095)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 규명한 것으로, 감영 및 병영 기록 현황을 정리하고 『전라감사계록』의 서지를 정리하고, 계록에 수록된 감사 문서의 내용과 문서식을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전라감사계록』 뿐 아니라 전라감사 기록 중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완영일록』의 번역에 참여하였고, 감사 기록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계록의 해제를 확대 연구한 결과물로서 감사 기록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다.

전라감사의 기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토론자로서 발표자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발표문을 중심으로 토론자의 지적 수준 내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몫을 다하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 전라감영 관련 기록

본 발표문에서는 현존하는 전라감영 및 전라병영 계록 문서로 『전라감영계록』을 비롯하여 총 5종의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각사등록』 내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음의 사료들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 『全羅道觀察使啓本』 1첩, (규 27633)
- 『濟州啓錄』 4책 (규 14099)
- 『湖南啓錄』 6책 (장서각 2-3212)
- 『湖南書啓草』 1책 (규 고5120-70)

또한 토론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湖南狀啓騰錄』(1652년), 『湖南兵營日記』(17세기 초)가 있으며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湖南啓錄』(1872) 1책이 현전하고 있다.

□ 전라감사 문서식

발표자는 이강욱의 계사 문서식에 의해서 전라감사의 계사 문서를 非兒房啓辭의 書傳啓辭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는데, 그에 앞서 계사는 “중앙관부문서의 일종으로 중앙관부의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 요청, 문의할 때 사용하는 문서” 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서 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발표자는 계사 문서가 중앙관부만이 아니라 외방관부에서도 사용하는 문서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명확한 개념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啓錄을 “일반적으로 啓辭나 啓文을 기록한 것” 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전라감사계록』의 문서는 ‘啓本’ 과 ‘啓目’ 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啓文은 啓本, 啓目, 狀啓, 草

記, 啓辭 등의 여러 종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록의 문서식이 계본과 계목 뿐인지 궁금하다. <표 5>의 문서 종류에는 계본과 계목이 보이지 않고 狀啓가 128건으로 나오고 있어 서유구는 계본과 계목으로 올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감사계록에 수록된 문서식에 장계는 없고, 계본과 계목 뿐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강욱의 연구에 의하면 상달문서로 『경국대전』에는 계본식과 계목식이 있지만, 『전율통보』에는 ① 進箋式 ② 京司啓本式 ③ 啓目式 ④ 草記式 ⑤ 外方啓本式 ⑥ 狀啓式 ⑦ 上疏式 ⑧ 筭子式 ⑨ 上書式 ⑩ 上言式 ⑪ 呈辭式 ⑫ 下直單子式 ⑬ 謝恩單子式 ⑭ 六行單子式 ⑮ 問安單子式 ⑯ 祗受單子式 ⑰ 守令薦單子式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 상달문서 중에 발표자는 감영계록에 나오는 문서식으로 ③ 啓目式과 ⑤ 外方啓本式을 상정한 것인지. 흔히 상식적 수준에서 감사가 국왕에게 보고하는 ⑥ 狀啓式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한다.

“살육사건이나 재난을 당하여 표재(倭災) 등을 아될 때 중앙 관아에서 보내온 계목식이 감사의 계본 문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계목식은 상달문서 인데 중앙 관아에서 지방관아에 보내온 계목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無啓目單子’도 있다고 했는데 명경일의 연구에서는 무계목단자의 사례가 모두 중앙 관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감사계록』에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는지 있다면 사례를 들어주고 기존 연구와의 특이점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 전라감영 기록과 감사 기록의 연구 방향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각사등록』에 수록된 전라감영 기록은 총 98종이다. 이 가운데 전라도편(18책~21책)에는 『전라감사계록』을 비롯 총 23종의 감영 기록이 들어 있으며, 보유편(53책~54책)에는 75종이 포함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17세기 기록이 『전라도무주현적상산성조진성책』(1632) 등 4종, 18세기 자료가 『남원현공사』 등 4종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세기로 52종이다. 특히 19세기 후반 자료가 45종에 달하고 있어, 『각사등록』 감영기록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1900년~1910년 사이의 자료도 23종에 달한다. 이와 같이 전라감영의 시기적 분포는 19세기 후반 이후가 총 68종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경제관련 기록이 23종, 군사관련 기록이 11종, 사법관련 기록이 9종이고 나머지 55종이 행정관련 기록이다. 감영 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관청과 지방관청, 지방관청 상호간에 왕래한 공문서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의 검색 결과를 보면, 『각사등록』에 수록되지 않은 감영기록은 총 171종에 달한다. 미등록 전라감영의 기록의 경우 경제관련 문서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171종 중 121종을 차지하여 71%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행정관련 기록이 26종이며, 군사·사법 관련 기록이 10종 미만이다.

이러한 현전 기록으로 볼 때 감사의 기록 이외에 전라감영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록을 통한 콘텐츠 정리가 필요하다. 콘텐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록이나 감사 일기류 못지 않게 1차 문서군(검안, 각종 사례 등)에 대한 정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라감사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 연구 -현존하는 전북 도내 전라감사 금석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승대(전북도청 학예연구관)

1. 먼저 토론자는 발표자가 주어진 주제를 소화하기 위해 전북 도내 전라감사의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을 샅샅이 찾아 조사하고 연구하여 이 발제문을 작성한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 금석학은 전라감영 연구에 있어서 또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라 판단된다. 빗돌에 새겨진 당대의 1차 사료로서 역사적 고증을 통한 가치 창출이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발표자는 그동안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I~V』(2017~2011) 등의 연구성과를 통해 자타가 인정하는 전라북도 금석문 전문가이다. 본고에서는 도내 현존하는 전라감사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을 크게 신도비·사적비와 선정비로 구분하였다. 신도비·사적비는 전주출신의 개국공신인 이백유신도비, 1417년 불서 간행의 정점에 있었던 성달생의 기록이 새겨진 화암사중창비, 조현명·이상황·박윤수 등의 행적이 있는 남고진사적비(1846), 이상황·박윤수 등이 기록된 남관진창건비(1873), 줄포만 제방 보수와 관련한 이완용공적비(1898)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선정비는 전라감영지(원인손, 이서구, 김성근 등), 남원의 광한루원(이서구, 이현직 등), 교룡산성중수비(유봉휘), 임실 봉황산(이서구), 오수 원동산(민진원, 원두표), 태인 피향정(이서구, 서기순 등), 고부 군자정(이면상), 금구향교(이서구, 서상정), 김제 연정동(홍의석), 만경(이서구, 조봉진), 옥구향교(이병문), 고창읍성(이서구 등), 흥덕향교(김성근, 서상정 등), 삼례역참터(서기순, 서유구 등), 봉동(이목연, 서기순 등), 여산동헌(조성교, 윤영신 등), 무주 한풍루와 무주향교(서기순, 김성근 등), 남고산성 인근(서상정, 원경순), 위봉진(조성교, 심경택 등), 위봉폭포 암각(홍인한), 상이암 암각(김문현 등), 파소봉 암각(원인손 등) 도내 전역을 직접 필드워크를 통해 연구 분석하였다.

2. 발표문을 토대로 토론자는 전북 도내에 현존하는 전라감사 행적과 관련된 금석문을 더 확인하여 추기하면 아래와 같다.

(고창) 흥덕향교 앞 ‘관찰사 이헌직(李憲植)선정비’

(군산) 임피향교 앞 ‘관찰사 이헌직(李憲植)선정비’, ‘이돈상(李敦相)선정비’

(군산) 옥구향교 앞 ‘도순찰사 구봉서(具鳳瑞)선정비’, ‘도순찰사 이병문(李秉文)선정비’

(군산) 나포면 교동마을 ‘관찰사 김규희(金奎熙)불망비’

(군산) 서수면 마포 ‘함열마포교중수비(咸悅馬浦橋重修碑)’ : 1831년(순조 31) 관찰사 박영원(朴永元) 記, 마한(馬韓) 관련 기록, 함열현감 홍기섭 불망비와 함께 건립.

(김제) 제월동 ‘이계맹신도비’(1648) : 1508년 전라감사 역임, 김제군수 창강 조속 글씨.

(김제) 벽골제 ‘벽골제비’(1684) : 1413년 도관찰출척사 박습(朴習)의 벽골제 중수 기록

(김제) 월촌동 ‘길교비(吉橋碑)’ : 관찰사 이호준, 김제군수 김성근 공적 기록.

(김제) 홍심정 비석군 내 ‘관찰사 김홍근선정비’, ‘관찰사 서기순선정비’

- (남원) 운봉 '황산대첩비'(1577) : 전라감사 박계현 주도로 건립.
- (남원) 주천 '허항묘비'(1694) : 외증손 전라감사 박경후 묘비 글씨를 쓰고 세움.
- (남원) 대강 '황근비묘비'(1723) : 후손 전라감사 황이장이 짓고 건립. 황희의 조부 묘.
- (무주) '적상산성호국사비'(1645) : 전라감사 목성선의 호국사 창건 기록
- (부안) 격포 '관찰사 유봉휘선정비' : 1714년(숙종 40) 격포진에 건립. *교룡산성중수비
- (부안) 석포 '관찰사 심경택불망비'
- (완주) '송광사개창비'(1636) : 글씨를 쓴 의창군 이광(李瑠)은 전라감사 허성(허균의 형)의 사위임
- (익산) 익산향교 앞 '관찰사 이호준(李鎬俊)선정비' '관찰사 홍석보(洪錫輔)선정비'(1714), '관찰사 한진창(韓鎭昌) 선정비'(1905)
- (익산) 용안향교 앞 '관찰사 서기순선정비', '관찰사 이경직선정비'(1893), '관찰사 김성근선정비'(1883년), '관찰사 윤영신선정비'(1887)
- (임실) 정월리 '김복규묘비'(1849) : 1833년 전라감사를 역임한 서유구가 지음.
- (임실) 상월리 '김기중묘비'(1849) : 1851년 전라감사를 역임한 이유원이 씀. 김복규 子.
- (전주) '화산서원비'(1664) : 1543년 전라감사를 역임한 송인수에 대한 배향 기록.
- (전주) '희현당사적비'(1707) : 1700년 관찰사 김시걸 옛 사마제터 학당 설치 기록
- (전주) '희현당중수사적비'(1743) : 父子 전라도관찰사 이집과 이주진의 학당 중수 기록
- (전주) '남고산성 압각서' : 1741년(영조 17)에 전라감사로 부임해 1년간 근무한 권적(權臧)이 차운한 시가 써 있음.
- (전주) '서천교창건비'(1833) : 1832년 관찰사 이규현이 공역을 진행한 내용 기록
- (전주) 전북대박물관 '이헌구선정비'(1859) : 첩비로 남아 있음.
- (전주) '기령당사적비'(1933) : 1899년 '양노당' 건립과 관련 관찰사 조한국과 군수 이삼응이 경비를 보조하였다는 내용을 기록.
- (전주) 추천대 '서기순선정비'(1943)
- (정읍) 태인 녹동 '순찰사 이서구불망비'
- (진안) 우화산 '관찰사 서상정불망비'(1868)
- (진안) 용담 '관찰사 조강하(趙康夏)거사비'

특히, 이 중 적상산성호국사비, 송광사개창비, 황산대첩비, 화산서원비 등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계맹신도비, 희현당사적비, 함열마포교중수비 등도 최소 지방향토문화유산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발표자께서 이러한 전라감사와 관련된 금석문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위에 언급한 내용에 더 추가되어야 할 금석문이나 내역은 없는지 묻고 싶다.

3. 도내 금석문 중 전라감사와 관련된 비석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금석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1680년(숙종 6)에 전라감사를 역임한 이숙(李勳)은 순창군수 이유겸(李有謙)의 아들로 도암 이재의 증조(曾祖)가 된다. 현재 순창읍 남아 있는 '순창군수 이유겸 선정비' 연계하여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김제 금구향교와 전주 남고진에서 확인된 관찰사 서상정선정비와 관련해서는 서상정의 아버지 서호순의 불망비가 무성서원 내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 비는 1894년(철종 31)에 최치원 영정을 새로 개모

(改貌)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또한, 1685년(숙종 12)에 전라감사를 지낸 조상우(趙相愚)는 태인현감 시절(1656~1659)에 세운 ‘유상대비’는 현존하지 않지만, 1919년 그 터에 새로 세운 감모정비가 있어 주목된다.

또한, 전라감사 중에 글씨를 잘 쓰고 금석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도 주목된다. 1693년(숙종 19)에 부임한 박경후(朴慶後)는 당대에 명필로 양주의 박대립비, 하양의 김시성비 등의 유필이 남겨져 있다. 1703년(숙종 29)에 부임한 민진원(閔鎭遠)은 숙종비 인현왕후의 오빠이자 민유중의 아들로 ‘송담서원비’ (강릉 소재), ‘민유중신도비’ (여주 소재) 등의 뛰어난 글씨가 남아 있다. 1721년(경종 1)에 전라감사를 역임한 박사익(朴師益)도 글씨를 잘 썼는데, 대표적으로 전라감사 ‘민진원비’ (여주 소재)가 확인된다. 1736년(영조 12), 1744년(영조 20) 2회 부임한 윤득화(尹得和)는 ‘사명대사 표충비’ (밀양 소재)가 대표적이다. 특히, 1829년(순조 29)에 전라감사를 역임한 인물 중에 금석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조상우²¹⁾와 조인영(趙寅永)²²⁾ 등이 있는데 이들의 작품과 연계성도 주목된다. 예를 들자면, 조상우의 글씨는 1697년(숙종 23)에 전라감사를 역임한 심권(沈權)신도비(경기 양평 소재)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4. 발표자는 전라감사 행적이 기록된 금석문을 크게 신도비·사적비와 선정비로 구분하였다. 선정비는 이름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떠나도 생각하겠다는 ‘거사비(去思碑)’, 자기네를 아끼고 사랑해줬다는 ‘애홀비(愛恤碑)’ 등이다. 매우 큰 업을 쌓아 이별하기 싫어 곡을 한다는 ‘타루비(墮淚碑)’도 있다. 특히, 선정비는 일반적으로 학정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충북대 교수 임용한이 경기도 안성, 죽산 역대 수령 305명 가운데 현존하는 선정비 주인공 57명을 분석해보니 8%만이 ‘守令七事’에 의해 우수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²³⁾ 이와 관련해 전라감사 선정비에 대한 좀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5. 실제 우리 도내 출신의 전라감사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백유, 이계맹 등 그리 많지 않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밖의 전라감사에 대한 연구는 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대에 건립된 전라감사의 신도비 및 묘갈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장성의 박수량백비, 부여의 조현명신도비 등 금석문적 가치가 있거나 전라도 관찰사로 널리 회자되고 연구가 필요한 춘천의 이서구 묘비 등도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6. 아울러, 전라감사 이서구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인물로 알고 있다. 기이한 전설과 특히 문자학(文字學)과 전고(典故)에 조예가 깊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전라감사를 역임한 이서구에 대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21) 정해득(2019), 「숙종대 趙相愚의 정치활동과 금석문」, 『민족문화』53, 한국고전번역원.

22) 이상규(2018), 「19세기 전반 趙寅永 家와 淸 학자 간의 금석문 교류」, 『한일관계사연구』61, 한일관계사학회.

23) 임용한(2007), 「조선 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 『한국사학보』26, 고려사학회.

7. 또한, 전라감사를 대를 이어 지낸 대표적인 집안은 원주원씨 원두표 가문이다. 1634년(인조 1 2)에 부임해 2년을 역임한 원두표(子 원만리, 孫 원몽인, 曾孫 원명귀, 玄孫 원경하)는 현손인 원경하가 1744년(영조 20)에 전라감사를 역임한다. 할아버지 원몽인이 효종의 사위로 원경하에게 영조는 외당숙에 해당하는 척신이였다. 따라서 영조의 절대적인 신임하에 탕평책을 시행했던 인물이 원경하였으며, 그의 아들인 원인손(1765~1766년 전라감사)과 원의손(1773~1774년 전라감사) 역시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원주원씨 이외에 달성서씨, 풍양조씨, 여흥민씨, 양주조씨, 안동김씨, 우봉이씨, 전주이씨, 청송심씨 등의 가문도 함께 연구가 요망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8. 전라감사와 관련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향후 전라감사에 대한 금석문의 체계적인 조사(사전 조사, 탁본 등 현지조사, 번역 및 해제, 활용방안 창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계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우선 전라북도 내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전남, 제주 일원, 더 나아가 전국적인 전라감사 관련 금석문 조사 및 연구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